# 朝鮮日報

本紙八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 論說

### 轉換期의朝鮮

一

轉換期에들어간現下의朝鮮에關하야 다시洗細的敍述을要치안는다 이것은萬人의意識한바이오 더욱히論客與先驅者들의討論가旺盛하든바인 外話이다 그러나朝鮮의問題가 懸案으로된지이랜분수로는 統治階級의사람들은 아즉도뎌朝鮮에關하야 等閑하고뎌하야淺薄한智識밧게는가지지아니한모양이다 彼等이朝鮮問題에關하야容易히손을나히지안는것은 卽그만큼重大視하는證左이란것을 吾人이일즉指摘하엿섯거니와 그러나彼等의사이에는 朝鮮에關하야等閑하고 無智識한者가 依然히만타할것이다 지금와지도오히려『內地延長主義』式의同化政策을固守하고 적더라도朝鮮人의『善良한日本人』化의運遲함을奇怪視하며 혹은셔그를慨嘆함을보는것이라든지 或은朝鮮人의民族的解放의要求를 全혀永遠한夢想가티보고잇는것 가튼것은 모다明白한實例로손가락을꼽을바이다 이러한條件下에서決定되는 朝鮮의政治的및社會的轉換은 자뭇로獨特한時代相을가질것이 넘우分明한바이다

二

吾人은일즉 朝鮮今後의政治的趨勢를論한바잇섯다 그것은世俗의일은바大言壯談을 試코저함은아니다 이미社會進化의必然性을미들진대 朝鮮의政治的形勢가 지렬도所謂 妥協的及右傾的勢力의出現이 早晩에잇슬것이오 하물며統治階級의사람들의 힘을여準備하는것이다한曲折이 이에呼應하는一部士女들을낫어내이는바잇다할진대 今後朝鮮의政治的趨勢는 다만混亂하다는것보담은 룸이어分界가鮮明하며질未來를가지고잇다할것이니 吾人은그의善惡을高調하는이보담은 차라리그勝敗에注力함이 보담더時代的要求에妥當한것을밋는다 다만勝利를要하는것은 곳惡에對한善의擁護를意味함인것은 明白한바이다

三

欽定憲法은 鬪爭의結果로獲得한그것과는퍽다르다는主張을吾人은만히들어서안다 朝鮮今後의妥協的運動이 또한欽定的感은 官造的의一運動으로될運命下에잇는것을 識者는看過하여서는아니된다 여기에關하야서는 吾人이細微한批評을그만둔다 그러나將來할朝鮮의妥協運動이큰者가 所謂民衆의自然生長性에依한 讓步的인態度로서의 必然한産物로서보담은統治階級의사람들의 將來에對한深謀遠慮에因한 獨特한戰曲인것을생각하면 그것의政治的價値가 자못蔑如할뿐아니라 大衆을墮落에 쓸어너흘危險性이一層크다고할밧게업고 그에對한先驅者的鬪爭이 또한切實하게要求됨은 斷言하지아니할수업다

四

吾人은實際的考察을 要한다 物質的高壓의政策은 金城鐵壁가티잇고 朝鮮人의民族的一大願望은 넘우驀視하는彼等의見解는 根本的으로誤謬엿다 이는物質政策을拘持한者의 物質政策에捕虜된인것을 여기더욱要하다 그리고만일 統治階級에서 準備하는歪曲에應하야 爲주기를決心하는 사람들이잇다하면 그것이곳大衆의부르지즘과는매우隔離된畸形的私生兒될것을미더이한다 더욱히이에對한左翼各派로서의任務는 다만功利的傍觀와態度로서 그의漸進的敗北을 商推함으로써足한것이아니다 더욱더욱그階級的立場에서出發한 左翼的任務는다하야統治階級의사람들에게 설새업는衝擊을 줄뿐아니라 大衆들의墮落또는腐敗를防止하고 因하야 그의反撥的前進을持續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무엇보담도必要한것은 組織的인一定한運動이大衆으로 하야금 항상目的意識에依하야 옹측이고또訓練될수잇도록하는것이다 이로서轉換期의朝鮮은 비롯오意味가잇는것이다

## 革命을促進하자면 列國承認이必要타고
### 日本의率先承認을希望?
### 佐分利氏는陳友仁氏와頻頻會見

(漢口三十日發) 國民政府는 革命의成功促進함에는列國의承認이必要하다하야表面으로는過激分子의所爲라고念慮하나內面으로는이것을希望하야그促進策을講究中인데 露勢 에서는不遠間率先하야單獨承認을與할것을企待하고잇스나其効果는변변치안음으로重要한나라가운데에서一國이率先하야承認을與하기를翹望한다 그런데이承認을日本에서하여주기를바라고頻頻히好意를表하며日本에依賴하야率先承認하야서各國을誘導하도록하기를求한다 漢口滯在中인 佐分利局長一行은過日來宿舍를國民政府外交部長陳友仁氏의宿所인『카머나쓰호텔』에옴긴後자주會見中인데佐分利氏는日本이만일國民政府를承認한다고假定하면不平等條約改訂에對하야兩國政府가交涉을開始할때에如何한程度로할가또한國民政府는二十一個條問題其他의問題에對하야如何한態度를取하려하는가를主로하야國民政府의意見을뭇는中이며『쎈로진』顧問은某新聞記者와會見中 日本側과의사이에滿足한諒解가되는것을聲明하엿스며中央執行委員某氏는『쎈로진』氏와가튼말을하고또한不平等條約廢止이라고하더라도政治家로서또는테탬査한바에依하면國民政府는領袖格人物이廣東에서오지아니하야具體的對外政策이未決인 外談에問答을避하고잇다그런데佐分利氏는아즉얼마간滯在하야中央執行委員長政府委員長等이不日到着할을기다리는中인데國民政府는二十八日武昌總司令部에移轉할터이더라

## 北伐勝利 大祝賀會開催
### 三日間武漢에

(漢口一日發) 北伐軍의勝利와國民政府의移轉成立及湖北政府成立의大祝賀會는元朝부터三日間으로決定되야一日은漢口、武昌、漢陽에서政府와人民의合同主催로觀兵式을兼한祝賀會가開催되엿고밤은大提燈行列이잇섯다各戶에는新政府旗를揭揚하야市民은거이總出動되엿는데그數가數萬에達하야一大示威運動의光景을呈하엿다閱兵式後에熱烈한演說이잇섯고午後三時에일으어萬歲裡에散會하엿는데宣傳『비라』等으로『이新年이야말노新紀元의到來를意味한다』고高調하엿다더라

## 羊頭狗肉의 英國對中政策
### 依然히侵略的이라고
### 國民新聞의痛烈한論調

(廣東一日發) 英國公使『람푸손』氏의公表한對中政策에關한意見에對하야民黨機關紙國民新聞은卅一日社說로서
一、英國의對中態度가華府會議의精神에根據를두지안흠으로以上依然侵略的非友誼的이다
二、英國이一部利權을放棄하고一部條約의改訂을認定하는것은不得已하는것이오決코誠意잇는讓步는아니다 이것다시國民政府의努力과發展을보아同情과諒解를表示하고一部條約의改訂을云云함은滑稽에지나지못하는것이다
三、英國이日米佛의關稅保約敗의保證이되게할것이라고主張함에反對함은帝國主義聯合戰線의決裂을생기게하는것이다故로今後一層사와帝國主義打破、不平等條約撤廢를期할것이다
하얏스며또한廣東政府某要人의談에依하면 英公使『람푸손』氏의意見書는表面에는公平無私한友交的인듯이보이나其實은羊頭를揭하고狗肉을賣하는바라고云云하더라

## 法學博士 米에루大學에서 梁啓超氏

(上海二日發) 米國『에루』大學에서는 中國梁啓超氏에게名譽法學博士의學位를贈與하기로決定하얏는데 그大學에서일즉이學位授與式에는缺席이업섯슴으로梁氏가米國에親往하야그學位를바들는지모르겟다더라

## 黎元洪氏病勢 一月靜養尙要

(天津三日發) 黎元洪氏가突然히中風되야卒倒한것은既報한바어니와그病勢는腦力을過度하게쓴것으로腦溢血이되것인데西醫師의診治를바더서조곰療效는되엿스나一個月의靜養을지난뒤에나비롯오回復이되리라더라

## 附加稅實施
### 湖北、湖南、江西에
### 日本貿易大打擊
### 國民政府에서各國領事에通告

(漢口三日發) 國民政府는一月一日부터臨時內地稅의名義로輸出入品에對하야二分五厘 五分의關稅附加稅를徵收할旨를去二十九日夕刻에各國領事에게通告하얏는데그內容은 普通品은現稅率의半額 奢侈品에는그倍額을課하되그規則에違反하는者는貨物을沒收하고三年以下의監禁或貨物價格의十倍되는罰金에處함 그런데日本貿易上의漢口는廣東과遍殊하야日本의貿易이多額에至하는데國民政府에서二五、五의關稅附加稅를突然히賦課하면日本輸出에는至大한打擊이라더라

## 日英領事抗議

(東京電) 廣東政府首腦部가武昌에移轉되는同時에는日本消費稅의實現도豫期한바인데畢竟 力이것을抗議하야結局은實施를보지못하고잇는데漢口에서이것이實施될때에는日本에서案하는影響도甚大할터임으로高尾總領事는本省에此旨를開陳하고對策에對하야訓令을기다리고잇는바結局은領事團會議의結果嚴重한抗議를하리라고觀測되더라

## 佐分利氏 廣東方面視察
### 最初豫定대로

(漢口三十一日發) 佐分利局長은漢口의政情은大體觀察을마치엇고또武昌政府의對外方針이具體的決定을보기에와자는相當한時日을要하겟슴으로最初의計劃과如히廣東事情을視察하려고三十一日에廣東을向하야出發하엿다더라

## 楊宇霆入京後
### 重大會議開催
### 四大根本方針을決定

(北京三日發) 楊宇霆은昨日午後에入京하야今日順承府에서張作霖과根本方針을決定하려고重大會議를行하얏는데決定事項은左와如하다더라
一、河南은吳佩孚를식혀平定고軍費武器는奉天에서供給하는同時에第三軍團을出動식히어서서로提携하야京漢線浪海線、津浦線을完全히連絡식혀河南에서江蘇外지를安國軍의支持하는顧行內閣을組織하야列國의承認을求할것(但一部에 楊宇霆組閣說이잇스나楊은出馬치안코梁士詒內閣이가장有力한듯)
二、奉天派만의兵部組織에는죽어도二千萬元을要하고또너무나軍閥의色彩가濃厚하야民心을失할憂慮가잇슴으로北方各派代表를網羅할것
三、英國의附加稅案은對南方策임이明瞭함으로此에反對하고千二百萬元의收入은他方面에서調達할것
四、關稅會議의再開를正式으로要求하고關稅自主에依하야中央政署를辦出할것

## 梁士詒內閣決定

(北京三日發) 後繼內閣은梁士詒의顧行內閣으로大體決定되엿더라

## 靳軍北上
### 渭州占領計劃

(北京三日發) 靳雲鶚는武裝을解除치안코兵五萬을率하고信陽에서漢海線으로北上中이다與吳佩孚軍을압서渭州를占領하려는計劃이라더라

## 張宗昌濟南歸着

(濟南三日發) 南京에滯在하든張宗昌氏는去三十一日午前十一時發列車로孫傳芳以下其他要人의餞送裡에서京原을出發하야津浦線으로濟南에歸着하얏더라

## 三次留任한 顧內閣初會議
### 四日에召集

(北京三日發) 靳雲鶚氏의組閣失敗로三次留任된顧內閣은閣議를召集하야四日에初會議를開한다더라

## 伊日協會創立

(羅馬一日發) 當地에在한政界其他各士若干은日本協會를創立하엿는데右는經濟及文化的性質로서日本과伊太利間의知識을交換하고友國關係를促進하려는것이더라

## 輕艦建造計劃
### 米國唯一事業이라고
### 上院議員쏘손氏演說

(華盛頓三日發) 米國上院議員『쏘손』氏는三日上院에서演說하야 米海軍은英海軍보다도弱小하고日本海軍보다도뒤떠러저잇다此際에五五三의比率을爲하야一九三二年外지에新巡洋艦十七隻을建造하고主力艦의速力增加와布哇의防備를强固히할必要한다吾人은軍備競走는阻止하는措施를노히가爲하야軍備制限의試驗을하엿지만그試驗은失敗하엿다이제吾人이海軍力에잇서絕對的으로他國에떨어지기를願치안는다면吾人의唯一事業은即輕巡洋艦建造計劃을始作하야적어도米海軍의存在를列國間에證식힘이다 하고또氏는歐洲諸新聞의論調가歐洲各國間의協調와同時에米國에對抗하야歐洲와日本과의協調를暗示하고잇다고言及하엿더라

## 日海軍黑潮調査
### 列强의注目을惹起
### 來三月中旬에着手

(吳電) 明年度에日本海軍世界的大事業으로列强에서注視되는것은即니中米의西海岸에서發論하야赤道直下에서南洋水道를거치고臺灣、琉球、九州、四國、本洲에서千島列島에이르는寒流와合하야消滅되는暖流、黑潮의徹底的調査이다海軍側에서는此를爲하야來三月中旬吳所屬特務艦膠州及橫須賀所屬滿洲의二隻을南洋群島에派遣하고다시四月에이르러日本海를測量하고吳所屬特務艦大和를四國沖에서南下식히기로되엿다此外에艦上에서輕氣球를揭揚하야上層氣流의觀測을行하겟고特히東西帝大의海洋權威者도同乘케하겟는데此完成은海洋、水産、航海에非常한衝動을줄이라더라

## 政友態度
### 緩急兩派

(東京電) 今議會에臨할政友會의對議會態度는十六日同黨定時大會에서正式으로決定할터인데同黨으로서는勿論今日에이르러는一意로既定方針에基하야現內閣을正面의敵으로서倒閣의大旗를揭揚邁進하는外에는他途가업스나提携兩派特히政友會의內部에서는假令不信任案을提出한다고하더라도御大葬前에하는것은大喪中에슴매업시政爭을일삼는다는批難을밧어잘못하면國民의信望을失할憂慮가잇슴으로現內閣과一大決戰을試한다더라도先御大葬後에正正堂堂히陣을陳하고싸움이穩當하다는穩健論者와不信任案의提出이御大葬前에엇던後에엇던何等關係가업다立憲治下에잇서서皇室의御儀와政務와는全然此를別個로서녀이지안으면안되겟다고强硬論을主張하는者와의兩派가잇서要컨대多少의意見相違는잇스나兩派한現內閣에對하야不信任의意志表示는御大喪後外자保留함과如하고彼等이御大喪終了後直時議會를解散하야乾坤一擲의防禦에出함은明明白白한事實임으로我黨側으로서는그러한悠然閑閑한態度에出하지말고機會가成熟되기를기다려再開後議會에臨하야兩派의提携를策하고될수잇는대로速히不信任案을提出하야其道에出할것이라는論이勢力을占하는中임으로今黨側의意嚮은再開後即時不信任倒閣策으로의擧에出하는것이라고觀測되더라

## 御大喪儀決定

(東京電) 御大喪儀는本日에左와如히決定하얏더라
二月七日喪上殿儀(新宿御苑)
二月八日陵所儀(淺川)

## 公判審理中에 意外의波瀾?

(東京電) 松島事件의豫審記錄는一萬餘枚를算하는바事件의性質上當局도審理를急히하야公判은今年四五月頃大阪地方裁判所에서開廷될터이다 그러나被告人의大多數는政界의名士인以上辯護도一流者를網羅할것이고又被告等은斷乎히가리無罪를確信하고잇슴으로公判審理中에는意外의波瀾을보리라고期待하더라

## 箕浦氏의聲明
### 記者團에

(東京電) 保釋中인箕浦勝人氏는退院에歸京하야牛込自宅에靜養中인바三日午後四時記者團에對하야松島遊廓問題豫審決定書에對하야左와如히聲明하엿다 豫審決定書에對하야는不滿이다 角南豫審判事의取調는五月부터十二月外지밧엇스나同判事는司法權의獨立을爲하야는如何한陋醜을擔當한以來熱心히도緻密하게事件關係者의性格에이르기까지調査를始하야移轉運動의動機經過를爲始하야事件의眞相을捕捉하엿슬줄을信한다 따라서同判事에依하야決定됨에就하야는其結果如何에不拘하고遺憾은업다 그런데角南判事는終結의際에病이드러섯고服部判事는何等直接으로取調함이업시結審을하고말엇다十二月廿六日夜는服部判事의呼出을밧고即時結審이라는말을드럿다그時에二週間假量의餘裕를주어천천히取調를하여달나고上申書를提出하엿슴에不拘하고一切此를드러주지안엇다判事는무슨할말이잇는가라고부름으로천천히드러주면하고십흔말이잇스나짤분時間으로는말할것이업다고對答하야取調는五分으로맛치엇다決定書에보면豫審의內容은事實과틀닌것이잇다余의決定書內容에對한不滿은公判廷에서기어히사올決心이다

## 人事消息

▲사르두나노푸氏(京城駐在露領事) 四日朝京城着任

## 八面鋒

○英國의對中政策은、羊頭를달고狗肉을파는手段이라고、中國國民新聞은大攻擊하얏다
○中國民도이제와서는、설만치않엇거든、그러한手段에속을것인가、十九世紀에하든酬酢을그대로하다가는、아니될걸
○政友會의態度는、既定方針대로나아갈터인데、緩急兩論이잇다고、其中에도不一致한貌樣
○齋藤總督은、總督府醫院東八號室에잇는、四十二名의患者에게歲饌떡을주엇나고、精神이잇서야、고맙단말이나듯지

---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Jan. 5th, 1927.*

### LET US FACE THE NEW YEAR WITH A SMILE
### BY PHILIP JAISOHN
### V

The new type of young people who are constantly increasing in number among us are not like their grandfathers, in that they know how to take care of themselves and how to manage their own affairs in an intelligent upto-date fashion.

They need no urging, much less compulsion, to be clean and healthy. The reason they do not attempt to manage the affairs of the community or nation is that they have had no chance and they feel also that a large number of their own people are not yet determined to support with all their might any movement of national or racial interest, such as education, economics, sanitation and kindred subjects. But the time is getting nearer every day when such movements will receive a unanimous backing of all of our people. It will be a wonderful day when our trained men and women receive a mandate from their fellow citizens to go ahead with the work of national regeneration. With such a backing they ought to drive out poverty, disease and ignorance from their midst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Let us take a fresh courage to believe that this wonderful day is approaching us and let us also believe that our future and the future of our children looks far more encouraging than our past. While we are waiting for the day let us work hard, either with hands or brains, and chase off all gloomy thoughts with a confident smile believing that better days are before us.

The best way to be in good humor is to ignore the faults of other people and by all means do not blame other people for your misfortune. After all it is primarily our fault that we are poor and ignorant; it is our fault that we occupy a humiliating position in human society. It is our fault that we cannot defend our rights. The thing to do is find out our faults and throw them away like a hot coal and never commit them again.

There is no earthly use for us to be sour and cross or try to shift the blame on some body else. Let us take the medicine like a man and do not give any one a second chance to dose us.

In short, the new year's motto is then be cheerful on all occasions, work harder and produce more, keep the eyes and ears open all the time to absorb useful information no matter whence it comes. I am sure those who observe this simple motto during the coming year will find themselves much better off every way at the end of the year.

PHILIP JAISOHN

---

京城
市內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〇番

市內南大門通二丁目 柳在明布木店 電話光六四五番

京城南大門通二丁目大廣橋 白商會綢緞布木商 電話光化門局一三七六番 振替口座京城五〇一五番

002248

京城鍾路通 洋品直輸入商 東亞婦人商會 德元商店 主 崔楠 電話光化門 一二〇四 四一九 六四九

京城安國洞一三八 眼科專門 安國醫院 醫師 趙昺榮 電光 一二四三

京城鍾路四街里北隅 綿布直輸入 雜貨散賣 大昌貿易株式會社 電話光 一二六七 一七一三 二〇七

京城府觀水洞二一一番地 朝鮮料理 國一館 電話光化門 三六五 六六八番

京城府慶雲洞 朝鮮佛敎中央敎務院

京城府堅志洞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京城府黃金町二丁目 人蔘鹿茸專門 趙弼祥

京城府鍾路四丁目 全鎣弼 電話光一三八五番

京城鍾路二丁目三十六番地 最新式外國流行帽直輸入 林帽子店 主 林銘益

京城府堅志洞六十番地 朝鮮圖書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七番 振替京城八二五五番

京城府授恩洞百十九番地 普彰醫院 大夢房主任 崔俊相

京城貫鐵洞 又華醫院 院長 金水

京城府武橋町 漢城券番 電話光二〇三番

京城府南大門通 滙東書館 高裕相

## 색다른職業로만스 (4)

# 발에는서투른『게다』 허리엔日本衾具

＝일본집에서애쓰는조선녀자 시내에널린것이천여명이나돼＝

### 자장歌소리도凄凉

그래도 중여듯한햇빗이 거리를 비추일적에 몰건너사람들이 만히사는 본뎡통(本町通)이나 명치뎡(明治町) 근방에를가볼것가트면 혹은이십내외의 앳가흔니가 조선녀인네가 발에는서투른게다짝(下駄)이고 몸에는흉사히일본이불가든포대기를둘르고어린아이를업고 힘업는목소리로 자장가를부르고잇는 우수운중에도 눈물겨운자태를 흔히볼수가잇슬것이니 그것이 몰건너사람들이 흔히부르는『오마니』라는 사람들인것이다

### 主人家庭沒落 不得己이 노릇

수만흔녹오마니들중에 좀나히결은『오마니를못들고부르는니그의 이름은리복덕(李福德)(二六)으로 작년까지는 북촌의 엇던부자집에 더부사리노릇을하고 잇섯스나 불행히 그집의젊은아들이난봉을피어서 결국파산을 당하고 식솔도 뎍향을하고만까닭에 엇절수업시 그의남편은 명치정에잇는 엇던『카페』의 부엌덕이로 자긔는본정삼정목(本町三丁目)에서 시계포를하는 일본사람의집『오마니』로잇서나가긔진도를개척하는중이라한다

### 죽음만어써면 『요보』란辱說

복덕오마니는 「그에 모친고잇든상시천의집에서는 한달에 삼원을바덧섯는데 지금은 삯이 놀식음바드니까 그아그때보다 낫지요그러나 서로의정풍속이 다르니까할수업서요 조끔만 무엇을 잘못하면 금방처것은 조선사람이니까 그러라고 욕설을하니까 몸갓기가 써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놀바놀바식에 밝거벗고안즌심이지요 그리고커는 아무것도모롬니다마는걸 핏하면 요보가엇커니 엇커니하는데는참분해죽겟서요」 이야기가 점점가경에 들어가려할지음에 등에업힌 어린애가지나가든 자전거요령소리에 깜작놀내여서『애―』하고울매복덕오

### 上下老幼업시 絶倒할「呼母」

마니는 다시몸을 흔들어가며 자장가를 울주기 시작하엿다 어린아이가 다시잠이드니 오마니는말을이어서 「그런데그사람들이 웨우리들을 오마니라고부르는지 모르겟서요 데일우수운것은 주인집의 어른이던지 어린아이든지 함부로 오마니오마니하는데는 참우스워죽겟서요

### 職業爭奪戰에 月給三圓下落

그리고 월급도처음에는 한달에 십오원식또박또박 주더니 일본사람집이 월급이 퍽후하다는소문이나서 너도나도할것업시 조선사람은 그러케되니까 이제는삼원이원식이람니다 지금도 작고잘잇되려고 에쓰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이러다가는 한달에 단오원도못밧게 되겟지요 우―덤버드는것이 큰병통이야요 언제나돈을만이모하서 남이손부엇하다하면 모다 는지요 이런신산 노릇을그만두게될는지요」하고 그의신세한탄을 시작하엿드니 엿던일본녀자가 오마니 거긔서 무엇햇소와? 라고 소리를질은매 오마니는뽑 악간말을멈추어 구머니 어서가보아야지 하며황망히거편으로가버리엿다

근허 몰려 삼촌(三寸)가량이나 떠러저서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는데그싸홈의원인은원이산소의나무를 팔어가시고혼자 쓴다고하야 동네간에 사이가 ... 하는중형의아들려옥(麗玉)이가 삭촌성근에게 말이너무도 불순하다고하야 집안싸홈이 시작되어가지고그와가티되엿다더라

# 在滿洲新民府 民主議會制로改革

＝만주동일족성과○○분자박멸등 중대한여러사항을결의하엿다고＝

## 任員改選、陣容一新

모처로부터 도착한 정보에의하면 중국북만주(中國北滿洲)에잇는 조선민족○○단톄인 신민부(新民府) 에서는 요전에 ○○현(縣)○○○에서 제이회 정긔총회(第二回定期總會)를소집하고 파거제도를 민주뎍의회제(民主的議會制)로 개혁하야일층진용을정제하고 일신한 면목으로 사업을진행하기로하는동시에다음과가튼결의를하고또한다음과가티위원을개선하얏다더라

◇決議

一、全滿統一을促成하자!

一、○○○○○○○○○○○

一、○○分子를박멸하자!

一、우리는南北滿洲에잇는無產靑年에게文化를向上식히자

一、우리는時急히內地運動의統一을促成하자

一、南北滿洲에잇는農民의產業發展에努力하자!

◇中央執行委員

中央執行委員長金爀▲委員朴性儁▲崔彪▲金墩▲朴斗熙▲李一世▲康元▲許斌▲鄭信▲朴世晃▲黃學秀

◇民政委員會

軍政委-長崔彪(兼任)▲民事部委員長崔彪▲外交部委員長朴性儁(兼任)▲學務部委員長李一世▲金墩▲實業部委員長李一世▲財務部委員長朴兌▲法務部委員長朴性儁

◇軍事部委員會

軍事部委員長金爀(總司令)▲軍務部委員長朴斗熙▲參謀部委員長黃學秀▲敎育部委員長朴斗熙(兼任)

을 권관하기로 하엿다 하며 조선내디와 로령각처로 인원을다수히 파견하야 대대뎍으로활동을한다더라(뎡고합)

## 故姜宅鎭氏追悼

지난이십륙일 오후세시에 풍긔청년회 풍긔소작조합 풍긔로동공제회 노동교육연구회 일군회 친구농우회등의 륙단톄 련합으로 고하 강택진씨(故何然姜宅鎭)의 합분이봉(合墳忍痛)한 그의 일생을 추도한바 박창진(朴昌鎭)씨의 개식사로 황정흠군(黃貞欽)의약력랑독과 김필군(金東弼)의추도사와 리의백군(李義白)의 추도가로 청대히거행하엿더라(풍긔)

## 徐世忠氏放免

지난달이십구일에 몰연히 본뎡경찰서에구금되여 만흔고초를 밧든 시외공덕리(孔德里)서세충(徐世忠)씨는 지난삼일에무사방면되엿다고

# 拷問殺人한巡査를 懲役一年判決

## 절도혐의를무수란타후 코에랭수를부어죽게해

장련경찰서금복주재소(長連警察署今卜駐在所)에 근무하든순사 재등우길(齋藤友吉)(三八)은 구타치사죄(毆打致死罪)로 지난달이십칠일에 해주디방법원석흑판사(石黑判事)로부터징역일년에 판결하엿다는바 이제재등순사가 사람을구타치사한 내용을알아보건대 황해도은률군장련면화천리(黃海道殷栗郡長連面花川里)에사는 리응상(李應相)(三○)이란도인이 작년십이월오일에 동리사는 한창무(韓昌武)의집에서 여러사람과가티자게되엿든바 가티자든사람중 석명수(石明洙)(三一)이란사람이그집에서 자다가 돈 오원을 절취당하엿다고 권긔금복주재소에 고발하는 동시에 권긔리응상이가 절취한듯하다고말하엿슴으로금복주재소에서는 리응상을잡어다가 신톄를수색한즉 현금五원십팔전이잇슴으로 권긔 재등순사가 그돈의출처를 무른즉이논은 내가엇던사람의집에서 로동임금(勞動賃金)십원을바다가지고쓰다가 남은돈이요결코절취한돈은아니라하매다시조선인순사에게맛기여취됴하는중품삭바닷다는사람의성명을재등순사가 취됴할때와는다르게말한까닭에 재등순사는눈가힘뎐더러녹돈의 출처를 의심하야 직경이촌오분이요 길이가 삼척이나되는 몽둥이로 전신을란타한후 나종에는코에다랭수를부어던바두시간이되도록살아나지안음으로공의김윤희(公醫金允熙) 윤선도(尹善渡) 량씨는 다려다가시테를해부하야 검정하고또다시 해주북본뎡(海州北本町)에사는공의 삼정길(公醫森定吉)씨를다려다가 감정한결과 권긔와가티구타한후코에물을 너허서 죽은것으로판명되여 재등순사는 취됴를마치고 공판에부치게 되엿든데 지난달이십사일에 해주디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공판을열고판야검사(板野檢事)로부터 징역이개년의 구형이잇섯든바 이십칠일에 권긔와가티 일년으로판결하엿다더라(해주)

# 自働車에서發火

## 新年劈頭에頻頻한火災

### 운뎐수는화상까지당해 三日白晝黃金町火災

삼일오후한시삼십분경에 시내황금뎡(黃金町)일뎡목조일자동차부(朝日自動車部)의운뎐수엄길운(嚴吉運)(二三)이가자동차의긔데를소제하는중에 뎐지(電池)로부터 뒤뎐(漏電)이되야엄길운은 왼손에화상을당하고 자동차에는 불이부터서 모다태운후 가옥에까지불이부트라 하엿든바 급보를접한 소방대가달려와서 불일은나지안코 자동차를 부만태우고 진화되엿는데 손해는이백원즘되리라더라

## 赤露領館小火

즉시진화되엿다고

사일오전열시이십분에시내정동(貞洞)노서아령사관(領事館)부속조선가옥에서불이이러나경성소방서와 밋 소관서니문서로부터 출동하야 진화에로력한결과즉시진화되엿는바손해는삼십원가량이오 원인은 방금됴사중이라더라

## 體府洞小火

일일오전◇시오십오분 시내 톄부동(體府洞)백구십삼번디종녹부고원김명길(金命吉)의집으로부터 불이이러낫든바 즉시 진화하엿는데 원인은방금됴사중이오 손해는약삼원가량이라고

## 新友執委會

북만주에잇는

작년팔월에 북만(北滿)에서 조직된 사상단톄(思想團體) 신우회(新友會)에서는지난달이십팔일에집행위원회를개최하고만흔결의가 잇섯는바 이미작정한뎡긔총회는 매년십이월중인데 시세형편과 여러가지 사정으로인하야 금년이월중으로 개뎡하고 중앙협의회대표진허(陳虛)씨가피선이되야 각방면의 중신련락

# 唐津面面書記 七千圓橫領逃走

## 당진형사대가상경하야 鐘路署後援下活動

삼일오후 종로서 사법계에서는 충남당진경찰서(忠南唐津警察署)에서놀연히 상경한 세천(細川)경부보와 우(禹)형사의두명과 장시간의 밀의를계속하고모(某)방면으로 활동을 개시하엿다는데 모방면으로 탐문한바에의하면 지난△의긔 당진면(唐津面)에서공금칠천여원을 횡령도주한 면서긔김모(金某)를 톄포차로 상경한것으로 세천경부보와 우형사는 종로서원의 응원을 어더가지고 범인수색에전력을경주하는중이라더라

# 張作霖入關을機會로 赤露宣傳隊活躍

## 오참부근에서선전원세명톄포

긔보＝합이빈(哈爾濱)에돈부를두고 남북만주의 적화를선전코자 각방면으로 운동을맹렬히하는적노(赤露)의선전대는최근에 일으려장작림(張作霖)의 입관(入關)을 긔회로삼아 전만주에○○운동을 구데뎍으로 일으키고자 맹렬히 활동하는형적이잇다하야 만주에잇는 각현당국(縣當局)에서는취체가엄밀한터이바 몃칠전에 중국파로서아의국경인오참(五站)에서주의를선전하는중국인한명과로서아사람 두명을 검거하얏다는말도 잇는터이더라(뎡고합)

## 全滿洲에具體的運動

## 群兒投石 列車內騷亂

### 부상자는업서

이일오후네시십분 인천역(仁川驛)을떠난데이백이십이렬차가 부평소사(富平素砂)간을진행하는중부근아이들이주먹만한돌을 차에 던지어 이삼등객차의류리창이쌔여지면서차내는소동케하얏스나부상자는업섯다고(소사)

## 江景驛頭 警戒嚴重

긔차오르나내리는 사람들일일히됴사

충남강경경찰서에서는 돌연히 모방면의정보를접하엿는지지난이일아츰부터 정사복 순사일대는 뎡거장부근에일려여 승강하는행인을 엄중히경계하며 형사들은 전남방면에서 주의인물리모의올라온것을추적하는모양이라더라(강경)

## ◇電車와自働車衝突

지난삼일 오후네시십분경에 부내 신창리(新倉里)전차정류장부근에서 평남양덕자동차 회사화물(貨物)자동차를 신일쇠(申一劒)(六)가운뎐하야 오로도 돌아오려하든 조음에마츰 평양역을향해나려가는 데사호뎐차와 충돌되엿는바 양편에 사상은업섯스나 동화물자동차는 전륜(前輪)이과렬되어 운전불능이되엿는데 손해는약 백오십여원에달하엿다고(평양)

## 아오에게물려 입술떠러진兄

### 아오의코물물려다 도리혀입술을물려

지난삼십일에 개성남산뎡(開城南山町)오십번디 김형근(金亨根)은농리사는 자긔친아우성근(聖根)이와 다투는쇠테 아우의코를 물려고 입을버리고달려들다가 아우에게입술을도

## 父母싸홈에 아들이橫財

### 부모의돈싸홈에 자식이횡탈하여

강릉군성덕면 박월리(江陵郡城德面博月里)에사는 차학순(車學順)은 지난 십이월 이십오일에자긔안해리원춘(李元春)(四三)과 부부사이에 채권재무로일녀겨투가 이러나 돈주머니를 서로빼앗다가아들이 그것을보고 횡탈(橫奪)하야가지고다라낫다는 사실이잇서 근처에이약이거리가된다는바 내용인즉 권긔차학순과리원춘과는 부부이나 한가뎡에서도제각기따로살림을하는터인데 리원춘은 원래성질이 완악하야항상쉰안에서불평을이르킬뿐아니라 자긔남편구타하기를례사로하는터이라는데차학순은리원춘에게채무가칠십원이 잇는바 차학순은 도박으로가옥까지팔게되매 원춘은 별안간너에게돈을 무어주다가는 안되겟스니날새에 한참농안될 겨투가니러날새에 학순의 주머니속에든 잇는것을빼고주머니를빼여가지고달라거니못주겟느니하며서로 빼앗기지안크라고빼앗겻다빼아섯다할때에 그아는 몽룡(夢龍)(一三)은 낭경을보다가현금이십사원든주머니를가노차가지고즉시 어데로인지 도망하여 바린것이라더라(강릉)

# 新年第二日 煙火에三母女燒死

## 초이튼날잔듸베러갓다가 담배불에삼모녀가타죽어

일본궁긔현소림뎡 송촌(宮崎縣小林町松村)에사는 금조조(今)의 처우메(カメ)(五五)와장녀하쓰(ハツ)(三)와 밋 열네살된 넷재딸등 세사람은 오후두시경에 수산(須山)들로 「잔듸」를 베러갓다가 모친되는「우메」가 피우고 버린담배불이 잔듸에옴겨 부터 마츰 불어 오는 바람에불이번저서 몹시탐으로 그들은 나올곳을 일코그만그속에서타죽엇다더라(궁긔뎐보)

# 信號手過失로 人夫가慘死

## 로동친목회에서문데야긔 年初大邱驛의慘劇

사일오전아홉시이십오분에경부선대구역(大邱驛)구내에서 대구로동친목회원(大邱勞働親睦會員)으로 대구역하물운반인부(大邱驛荷物運搬人夫)인김만덕(金萬德)(四)이라는사람이 화물차(貨物車)를밀어노하다가 신호수(信號手)의 과실로 뒤에서밀려오든 다른화물차에치여즉사하얏는데 권긔친목회에서는 즉시 림시총회를집하고 그와가티 한숙치못한신호수를 두어가지고 인명을사상케함은 책임이 텰도편에잇다고하야 일대문데를 일으킬모양이더라(대구지국뎐화)

## 饑友타가 老人轢死

### 경원선에서

원산부중리 이동(元山府中里二洞) 이십구번디에거주하는홍준성(洪俊成)이란도인은지난이일오전 삼사분에 갈마역(葛麻驛) 발념자로강원도련원(鐵原)을 향하고 가는엇던 등세괴차가 막떠남으로 차실에놀어갓던 이를 전송하러 차실에올낫다가 뛰여나리다가 잘못노코 차에치여 왼편팔이 붙어진채로 궤도우에 혼도한것을 역장이 발견하고즉시 구세병원(救世病院)으로 수용하얏는데 의사가 진찰한결과 팔만붙어진것이 아니고 왼편흉부가전부중상이 되엿슴으로 수술로급히옴기려하엿스나마츰내무참이사망하얏다더라(원산)

## 他鄕에살러왓다 親舊妻를쌔서

일시는동리에서 말썽거리가되여

충북보은군보은면 죽전리(忠北報恩郡報恩面竹田里)송길수(宋吉洙)(二四)의처 김성녀(金姓女)는 가튼동리에잇는 리인걸(李仁杰)(三八)과 작년삼월부터 불의 정을 누하야오던중 동녀는 자긔의원처디인 평북초산군(平北楚山郡)에가서친척의집에 의탁하여잇다가 동년십월십일일에 자긔집에도라와보니 김성녀는 리인걸과공모하고 영영배척할작정으로 가진수단을 다써서 본부송길수를 배척함으로송길수는 엇지할수업서 십오세된 딸아기(阿只)를다리고고향인초산으로 동 ◇십이월륙일에 떠낫는데 이것을안 일반동리사람들은그저둘수가업다고 한참은보테가되얏섯스나 차차도 물돈이 갈아안진둥되라 펴노코 부부생활을한다는바 리인걸은 송길수와암에 초산에서보은으로 살러왓다가 그와가티 친구의계집을 쌔앗은것이라더라(보은)

# 賃金안준다고 督促한代表를亂刺

## 일시피해자는혼도까지해 東津水組의無理한日人

지난십이월 삼십일 오후네시반경에 전북정읍군산내면 종성리(井邑郡山內面宗聖里)에잇는 동진수리조합 수원디 공사청부자대림조상촌사무소(東津水利組合水源地工事請負者大林組上村事務所)안에서 주인상촌의아우 상촌류웅(留雄)(三三)과조선인박긔홍(朴基洪)(三二)사이에는 쇠테 겨투가생겨 필경류혈의참극을일우어 권긔박긔홍은 귀와귀뒤와 뒷목에합세곳의 칼을마저 즉석에서혼도한것을 그숙부가급보를 듯고와서 다려갓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처음부터 동진수리조합사장에서는 사용하는인부의 삯을현금으로주지안코 권표(傳票)를 사용하고 매월삼차식 현금으로교환함으로 그권표는 현금과가티일반상품매매에 사용되여 상노들이 십일동안 물건팔어모흔권표를 상촌사무소에가서 교환해오는것이상례(常例)인데지난십이월에와서는 한번 현금교환을연긔한일이 잇섯슴으로 로동자들과 상인들은 곤난이적지아니한중 년말인 삼십일일에는 오전십일시에 교환을한다고 게시까지하엿슴으로 뎡각에 군중이모혀와서 교환을청구한즉 오후네시로미룸으로 하는수업시 네시까지기대렷는바 네시에 또청구한즉 또여섯시로 미룸으로군중은 권긔박긔홍을 대표로뎡하야 여섯시에는 다시미루지말라는단속을하라고 사무소안으로 들여보냇더니 대표박긔홍이가 그교섭을한즉 권긔상촌류웅이가 건방지다는등 불순한 언사를써서 언쟁이 일어낫든바 상촌이는별안간 손을뿌리처 허리에찻던단도(短刀)를 빼여 좌우로내두르며 발길로무수히차서 무참히박긔홍을찔넛든데 전후삼처나 려지안은 상처를내여 선혈이림리한수라장이 되엿다하며 일반상인과 로동자들은 분앙함을이기지못하야뎜문(店門)을다친자가만흐며 피해자는 즉시정읍검사국에고소를제기하엿다더라(태인)

# 눈에고초가루너코 金屬品을多數竊去

## 범인우익일에잡엇다 奇拔한新式竊盜法

지난삼십일밤아홉시경에대판시랑화구원뎡(大阪市浪花區元町)일뎡목귀금속(貴金屬)상장수구(江上水久)가게로뛰어들어온 두명의 손님이 손님과가티 차린괴청년두명이 나타나 수구의눈에 『고초가루』를 뿌리고 ... 계(金時計)등을 느려노흔 진렬장 ... 두에 느러슨 금시계옆게시가벌원삼백원어치를 훔쳐 도주한바 이 급보를접한 소관경찰서에서는 곳비상선을 느리고범인을 수탐중 그이튿날 아츰 모다톄포하엿다더라(대판뎐보)

## 元山僵屍

지난이일 오전여섯시경에원산(元山)부내상리일동(上里一洞)원산사진관(元山寫眞館)압큰길에 사십남짓한남자 한사람이 넘어저 잇는것을원산서원이 의사를 대동하고현장에 달려가서 검시한즉 얼어죽은 것으로 판명되여 시테는원산부청으로 인도하엿는데 주소와씨명은몰으겟다고(원산)

## 電車에負傷

지난삼일 오후세시이십오분경에평양서문통뎐차뎡류소부근에서대동군남산면오륜리(大同郡南山面五倫里)윤덕진(尹德鎭)(三二)이라는사람이 선로를건너오다가 마츰 평양역을향하야 다려가는 뎐신일호뎐차에 부듸처서 일시는혼도상태에잇섯슴으로 급히평양제중의원(濟衆醫院)으로다려다가 응급수당을 베풀엇스나 별이상은업섯다고(평양)

## 疑問의乞人屍

### 타살혐의가농후

지난이일 오후십이시경에 전주완산뎡리현재(全州完山町李炫宰)씨 뎡미소에는 잡긴문을덥치고들어와 몹시고민하는소리에 마츰 그곳에서자고 잇던사람이 그소리를듯고 뛰여나가보니 나히이십미만된 젊은걸인이 면상(面上)에 두어군데나상처가잇서 혈이 랑자하엿스며그근방에는피투성이가되엿는데 목도한사람은 괴아로고만 함이나아닌가하고요괴할것을의심하야 어간사이에 고만 죽어바렷슴으로즉시경찰서에뎐화하엿던바 경찰서에서는 경관과 의사가출장검시하는동시에 죽엄의 원인을알고자 여러방면으로 활동하기시작하야 그이튼날인 삼일에는 완산뎡일대를 일일히됴사하고는그것는타살(他殺)이라고인정하고 정미소주인 리현재씨를 엄밀히됴사하며 그의혐의로 뎡미소에서보든변홍식(邊洪植) 최동렬(崔東烈)두사람을검속하야 엄중히취됴하얏스나 아즉사건의진상은알수업다더라(전주)

## 종명자

▲지난삼일밤경성역에서 동대문으로 향하는 뎐차속에서 이러난일이데▲차장이 표 쇠 적에 어떠한 손님을보고『어듸가』라고 불공히 말을하야 ▲그손님이 손님을보고 불공하게도 반말하는병이 잇느냐고 로발대발하야 큰싸홈이 버러젓다▲엇잿든일본사람에게는 공손히 머리를숙이고하이하는친구들이▲조선사람이라고만보면 되지못하게구는것은 패심한일▲자긔의동족을사랑할줄을 모르고 천대하는것이▲따지고보면 자긔자신을 모욕하는줄을몰을것가트면▲아무리무식한사람이기로 그러케할리는 업겟지만▲엇잿든한심한일▲세만사가모다다때따라변하는것은사실이지마는 사람의몸덩어리 조차된것은할수로변하는것이아니다▲예전에는녀자들이치마저고리만입고다니다가두루마기로 무터『만도』까지입게되니 아녀편네 거정거리가컴컴뒤려가는데▲요사히기생들은도로혀머리에쓴조바위를벗고 맨머리로다니니 알에도리만귀중히생각하고 머리는 남의살도아는가▲그러나 이전에는 비단신이아니면 뒷간길을 못다니든기생아 들가이 요사이는구두 『』 신으로만 관을친는모양이니 남의돈쓰기에 다소괴롭은 되는노


男女 腎氣强壯 月經順調 의大福音

英雄은不虛老하고大材는不世出이라扁鵲華陀諸師의心傳秘訣이幾多名醫를經하야이제야公開하게되엿사오니四海僉君子는勿失此機하시고通知하시면有病完治와無病益健의効를得하실詳細書를送呈함

但回信料를要함

中國奉天省十間房 德興號 謹啓 日郵局私書函七號

婚姻壽宴祭物 輕便 朝鮮料理 西洋料理 쓰기야기 永興館 京城府瑞麟洞百十番地 電話光化門三九七番

◉吉州極東 鐵道連絡 乘合自働車 定期發着 時間表

極東行(下り一番汽車吉州驛午前八時三十分着接續)

吉州行(上り一番汽車極東驛午前十一時四十五分着接續)

| | | | | | |
|---|---|---|---|---|---|
| 吉州發 | 午前 | 九時 | 極東發 | 午後 | 一時三十分 |
| 溫水坪發 | 同 | 九時四十五分 | 明川發 | 同 | 二時三十分 |
| 古站洞發 | 同 | 十時十五分 | 甖社場發 | 同 | 三時 |
| 甖社場發 | 同 | 十時五十五分 | 古站洞發 | 同 | 三時四十分 |
| 明川發 | 同 | 十一時五十分 | 溫水坪發 | 同 | 四時十五分 |
| 極東着 | 同 | 十二時二十分 | 吉州着 | 同 | 四時五十分 |

水南方面行(下り午後二時十五分接續)

城津方面行(上り午後五時四十分接續)

(元來水南終點을極東으로變更後賃金은三圓八十錢으로廉價되여經濟上便利는勿論이어니와時間上便利도만케되엿승니다)

咸鏡線吉州驛前 咸北自働車商會 電話二七番

淋疾治療에就하야

仁壽堂診療所長 독도루메지지비 敷津林傑

淋疾은가장治療하기쉬운病이나患者의大部分은不攝生을하는所以로治療키어려운것인자라첫재第一로酒、色、刺戟性의飮食物을禁하고治療함을肝要하는바이로다그리하야一個月乃至二個月間만忍耐하면必히全治하야再發치안케되며此의治療에는局部의洗滌과注射藥、內服藥等이有하야就中內服藥이最히良好하나잘듯는藥이업슬뿐아니라만이는胃腸을害하는까닭으로오래동안服藥치못하는것이라

『비오지고린』은最히理想的의內服藥임으로胃腸을害하지안코殺菌과利尿의力이耐히强大한지라他藥效가無하야難病者는一度試用하시기를바라노라

(適量 一回二個又三個式一日三回)此藥은服用後三十分을經過하면何人이던지藥効를아는고로患者는其氣分이조흔것을깃버하는지라

◉藥價 五十粒入金貳圓、百五十粒入金五圓、三百五十粒入金拾圓

前金送金留注文에限하야送料를不要함

發賣元 柴崎仁壽堂 京城府黃金町一丁目大通 電本一六六○番振替京城一四二五八番

朝鮮支店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電車通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車通

滿洲支店 大連市岩代町大通

附屬醫院 本店支店共附屬診察所를設備하야何人에게든지診察과治療를하오니患者는來店하시요

활표 고무

특별한재료와우수한기술로견고하게제조하오니한번사용해보시면 한다시실질을증명하실줄노생각합니다

堅牢無比、一年保證確實 體裁優美、薄利多賣主義

京城蓬萊町四丁目二二五 東明고무工業所 電話本局三八○四番

急告

本人財產에對하야某某人이挾雜한다하오니官廳이나其他誰某를勿論하고本人의自筆노本人도印鑑登錄한實印이아니면何種의債權이던지其他如何한手續이라도一切無效로看做하오니內外國人은一切勿見欺하시압

瑞山郡泰安面上玉里八○四

廣告

도합事이오니注意해보시옵

筆生 募集 敎育잇는者에게 尙한男女 自宅執筆 하는일이有한年中無休遠近不問하고收入確實하고地方本副業에適當함

大阪天王寺驛前 三光社

國喪表章 千個入送料 見本代 大阪市東區 製造元 國成社

●一月五日(水曜)부터大公開

●二大特選!!第一號히大對決!!

大유니버살쓰社最近大特作映畵!

●米國大유니버살쓰社一九二五年 大活劇 勇氣凜凜 全七卷

◎◎巨星조지、오브라이언氏大熱演

◎◎朝日上映되엿든名畫의續篇 社會劇 再生의男 全十卷

●大유니버살쓰社提供 大喜劇

運오자면서期待하라

來週封切映畫 쏙쓰週報 全一卷

●米國 名監督 世界的大活劇 夜의鷹 全七卷

大笑劇 三銃士 全十二卷

歐洲映畫 封切場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新春無敵의特別大興行 十二月卅一日(金曜日)부터 一月一日부터同五日까지 五日間晝夜興行

地獄極樂 全七卷

漂泊의人 全八卷 監督 엑턴、스커쓰거氏 主演 밀드레드、해리스氏

電光의로맨스 全五卷 리차-드、탤마지氏主演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五○番

一月五日낫부터封切五日間

西空의下 全八卷 유니버살社特作映畫

名譽의勝利 全六卷 유니버살社提供

第六 스페드의1 全二卷

國際時報 全一卷

◇特別豫告◇

奇怪한探偵劇 (빗蝙蝠) 全九卷

笑殺篇 사랑의鐵條網 全七卷

大雄篇 驛馬車 全十卷

유니버살作映畫 豪勇無雙 全六卷

團成社

# 轉換期에臨한 朝鮮社會運動槪觀 (三)

## ―過去一年間의回顧―

燕京學人

…部分的運動에서全體的運動으로…
…觀念的運動에서現實的運動으로…
…自然生長的에서目的意識的으로…

그러나殖民地의解放이반드시그러한漸進的인階段的過程을밟바서야만成立되는것도아니지만設使 그러한階段的漸進論을 肯定하야준다고할지라도………決코殖民地自體의 그러한交涉과妥協運動으로因하야 成就될것이아니다………그것은母國의統治階級이 殖民地民族의猛烈한政治的鬪爭의 非妥協的運動을緩和又는防止키爲한利害打算的政策으로부터서 나오게되는것이다………(그러고)………朝鮮의無產階級運動은 佛國이나英國이나日本等의그것과 自然히그發達의形態를달리하게되엇스니……朝鮮은………近代的產業이幼稚하야 勞資의反目이그다지劇甚하지안흠에 政治的被支配의苦痛은 所謂武斷政策 미테서未曾有의 苛酷을當하게되엇다……그럼으로 朝鮮의無產民衆運動은 經濟的으로가아니요政治的으로 發端되엇다는것이다 따라서朝鮮無產民衆運動은 어느時期까지 經濟的鬪爭보다도오히려政治的鬪爭에 强味를가지게되는同時에 半民族主義的色彩를가지게된다고할수도잇다………그럼으로……朝鮮의民衆運動은 그發端되以來今日까지에 質과量의實績에잇서서 恒常經濟的實際問題보다도 政治的觀念問題即―政治的意味를加한時事問題等에 置重하엿섯다 또한모든民衆運動團體는 그綱領을 無產階級的政治的鬪爭을 意味한最大限度의綱領으로하여가지고잇다그러면

### 우리運動自體가從來에잇서서

局限되지아니하엿슬뿐아니라 몰이혀政治的形態에 過重하게되엿것은다시 더多論할必要가업는것이라」하야 正友會宣言의『政治運動으로의方向轉換』論은 近代的產業이發達된自主國의 無產階級運動指導者들사이에喧傳되는바를 그대로輸入한舶來品」이라하엿고『朝鮮無產階級運動을가지다가 석두조아지妥協運動의壇下祭物로 貢獻할려는心思」라하엿다 또民族主義者와의提携는 다가리말하는바다 四合新年懇談會의決議는『民族運動의非妥協的部隊와協同戰線을促進할것」이라하엿고 上海社青主義者同盟의決議는『우리의無產階級運動과民族運動과의聯合을促成케할것이라」하엿다 正友會宣言은『民族主義的勢力에對하여도……積極的으로 提携하리라」하엿고 前進會檢討文은『殖民地民族의同民族的內의 無產階級運動과民族主義運動과는반드시協同動作의關係를가져야한다」하엿다 또『朝鮮民族의共同利益을爲하야奮鬪勢力을할에는반드시全民族的인各階級의力量을集中한 組織力의活動으로서야 可能할것임으로 朝鮮民族의中心勢力이될 唯一한組織體를網羅」하는 民興會의發起가잇엇다 그러나그의엇더한部分과提携하며엇더한形態로하여야할는자에이를어서는所見이 區區하다李友秋氏는『甚至於改良主義者 所謂『妥協主義者』까지라도그것들에게 同盟者的役割이잇는限에는 聯盟하지안흐면아니될것이라」하엿고 洪起文氏는『우리×××는××的으로도自治運動者와結合하야 現在의朝鮮問題를 展開식히지안하고아니된다」하엿다 正友會宣言은『그것이墮落的形態로出現되지안는限에는 積極的으로提携하리라」하엿고前進會檢付文은『妥協的이아닌것에限하여는그體系의如何를莫論하고 時間的提携를躊躇하지말어야한다』하엿고 無產青年會의決議文은『必然的으로 非妥協的民族運動과提携하게된다」하엿다 그의形式에잇서서도 或은思想團體의解體를主張하고 或는對立의必要를力說한다

六

一九二六年이提出한네가지問題는 모두가朝鮮의無產階級運動에對하야 重大한死活的그것이어니와 特히그中에잇서서가장問題가만코一般의焦點이되어잇기는『方向轉換問題』요 政治運動展開問題다 所謂『左右傾問題』즉運動의現實化問題도政治運動展開問題와所謂『左右傾問題』요『自治運動問題』다

『現實的모든可能의問題를充分히利用』하여야되고『從來의局限되어잇든經濟的形態로부터그보다一層 階級的이며 大衆的이며 意識的인 政治的形態로 飛躍轉換하여야된다」는 正友會宣言이發表된以後로 그의對立團인 前進會에依하야『主義上으로보아서 確實히改良主義的右傾化하려는것입을아는同時에 政策上으로보아서도朝鮮民衆運動의現實에비취어不可한것을안다 그럼으로主義와政策에잇서서 斷然히排斥하지하니할수업다」는決議文과『우리運動自體의從來의生長이어떠케된것인지 現在의狀態가어떠한것인지? 運動그自體부터全然히了解치못하는妄論이요『朝鮮의無產階級運動을가져다가석두조아지妥協運動의壇下祭物로貢獻하려는心思」라는 檢討文이發表되엇고 또無產青年會의反對決議文이發表되엇고 서울青年會의『主張의大體를原則的指導原理인點에서充分히承認』하는『二에必要한程度의大衆的의모든條件이未熟』됨으로도

### 時期尚早라는 態度表示가

잇섯다 이에對하야某新聞에는『朝鮮社會運動도이케는左右傾으로分立되엇다』는意味의大書特書의記事가揭載되엇고 左右翼의漫畫飛行機까지뜨게되엇다 社會運動者自體는 勿論이요 一般民族主義的陣營에서까지도 그에對한賛成反對의議論이紛紛하다 或은『朝鮮運動이完全히左右翼으로對立되고말엇다』하야 그의將來를憂慮하는者도잇고 或은『從來의無意義하든感情的派爭이 이번宣言에關로有意義한理論的鬪爭으로轉換되엇다』하야 그의將來를祝福하는者도잇다 아! 얼마나우수운날이냐? 勿論正友와前進의主張에 理論的分岐가잇는것은事實이요 特히正友會宣言이政治運動을是認하고 運動의現實化를主張하엿슴에對하야 前進會檢討文은 政治運動을排斥하고 非妥協的精神을高調하엿다 또『朝鮮民衆運動에잇서서도 압흐로어느時期에서든지妥協的改良的右傾運動의派流가動起치못하리라고斷案을言明』(前進會檢討文)할수업는同時에朝鮮의無產階級運動은 永久히左右傾의對立이업스리라고는 누구나斷言할수업슬것이다 그러나이것으로곳 左右翼의分立을聯想하고 純粹한理論的鬪爭을말함은너무도神經過敏한말이요非辨證法的偏見이다 昨日까지의感情的鬪爭이 宣言하나와檢討文하나로 단박에理論的鬪爭으로變하는수도업거니와 더구나左右翼의對立이 그러케하야成就되는것은決코아니다 서울青年會의決議文은 이에對하야『從來의兩個派閥勢力을代表하든兩個化身中의一인 正友會에依하야發表된宣言은 分裂勢力이依然히命脈을保持하고잇는以上 結局나마지化身의前進會에對하야 好箇의分裂口實을供給하는效果以上에 다나아가지못한다」하엿고 또『現在로分裂勢力은그最後의自殺的企圖에就하야 그小兒病的口吻을弄하야

### 正友會의宣言을絕好材料로

所謂左右翼의分裂이란口實알에에서 分裂勢力의死滅의機運과統一大勢에 抵抗을試하려고하지안는가?」고反問하거니와 이제우리가冷靜히 文句를떠난眞義를檢討하고 觀念을떠난現實에着眼할때에 實로이러한感이업지안타

無產青年會의決議文을본다면 現下의朝鮮에잇서서 政治運動의『成長可能의範圍』는그運動自體의性質上死滅 近來種種의風說을傳하는 自治運動의形態에이를것이다 이는要約하야換言하면民族運動이 合法的妥協的政治運動―自治運動으로展開되는傾向이잇다」하엿고 妥協的政治運動展開의實例로『一九一九年頃에 妥協的政治運動을標榜한 國民協會等御用團體가 가장跋扈하든것」을말하엿다 또『中產階級的民族運動의本流는 依然히그從來의非妥協的徑路를 不變하리라」하엿고前進會檢討文은 自今朝鮮의政治的現實에잇서서는『消極的墮落的政治運動(普選延長、議會特設、內政獨立、半自治運動等)」밧게잇슬수업다하야그것은『帝國主義勢力을援護케하는運動이되지못』하고 몰이어 그『發展의方便을補助하는運動』이될것이라하엿스니 그의反對하고排斥하는政治運動은中產階級의非妥協的運動을依然히그의本流로남기어두고發生되는 國民協會와가든御用團體 또는그와相距不遠한 屈服的墮落的政治運動이것갓다 또前進會檢討文은우리運動自體가 언제든지實際的政治運動은 抛棄하여야만한다고固執하는것은아니다」『勿論非妥協主義者로서도 戰術上利害打算을보아서退損이업는限度의 實際的當面利益을取得할것이잇다면 그럼에不顧하고 空然히

### 無謀한潔白性을固執하야

故意로抛棄하여서는아니된다는것은 이제새삼스러히떠로主論할必要도업는것이다」『相對的勢力(妥協改良)」에對하여도分離對立과『力的威壓』에만그치지안코必要에依하야서或은『表面으로는不干涉態度를取하고 裡面으로意識的細胞를植入하야그性質을分化』케하기도하고 或은『公然히聯絡的形態를取하야그것을好誼的으로敎導하며操縱하야 그性質을轉換케 할것이다』그리고『或은境遇에依하아서抗爭的××的勢力을增進케하기爲하야 相對되는妥協的改良的勢力을 一時的策畧的으로不得已利用하게될때도 全然히업스리라는것은아니라」하엿고 無產青年會의決議文도『우리는無產階級의妥協的政治運動을 主義上으로反對하는것은아니다』다만『客觀的諸條件이 無產階級의妥協的政治運動을 要하야마지안는限에는 이러한傾向의運動은 排斥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라」하엿스니 萬一그것이運動自體를爲하야有利한戰術이되고 客觀的諸條件이 그를要求한다면 決코排斥하지안흘것갓다

社會主義者로서 政治運動을否認할것이냐? 無產階級運動의最後運動은언제든지一定不變될것이냐? 一切妥協을無條件으로排斥할것이냐? 議會政策을根本的으로否認할것이냐? 前進會檢討文은『政治鬪爭』과『政治的運動』을區分하야『政治的鬪爭이라면 政治的現象을否認하여가면서서 政權奪取를目的하는것임으로 그性質이非妥協的이며 ××的이며 破壞的이며 創造的이며 理想的임을 意味하게되는것이요 政治運動이라면 그政治的現實을어느程度 或은全體까지라도肯定하여가면서 政權의分配乃至獲得을企圖하는것임으로 그性質이妥協的이며改良的이며 建設的이며 漸進的이며 實際的임을意味하게되다』하엿지만 萬一이것은甚히語한말이다 萬一이論法대로한다면『社會運動』과『社會的鬪爭』은對立식히고『勞働運動』과『經濟的鬪爭』을對立식히어서前者는現社會組織과現經濟制度를肯定하는妥協的運動이라고 하여야할것이니 이런矛盾된말이또어데잇겟는가?

### 政治運動을 反對하는者는

結局無產階級의終局的目的을抛棄하는者와 一致된다『一切階級鬪爭은모두 政治的鬪爭이다』(맑쓰)『萬若勞働者가 知識的及政治的生活의모든發現에잇서서 他社會階級의各個를觀察하기爲하야 現時의政治的諸事實及諸事件을利用할줄을모른것가트면 그러고社會的諸階級諸階級及諸集團의活動의모든形態에對하야 唯物的基準과分析을모를것가트면 勞働大衆의意識은 眞實한××的意識이될수업는것이다』(레닌)『衛戰는運動이上進하고或은下落함에딸아서 變更된다……一九○三年으로부터一九○五年에이르는동안에는黨의戰術은攻擊的이엇섯다 왜그러냐하면××的波濤가上騰하엿섯고戰術이이事實을基本으로하고 出發하지아니하면아니되엇기 때문이엇섯다……(그러나)……一九○七年 으로부터一九一二年에이르는동안에는黨은退却的戰術을取하지아니하면아니되게되엇섯다 왜그러냐하면 ××的運動이沈滯하게되어戰術은이事實을 顧慮하지아니하면아니되엇기때문이엇섯다……議會拒絶同盟代身에議會에參加하게되고 公然한議會以外의××的行動代身에議會에잇서서活動하게되고 政治的總同盟罷業 或은完全한休息이잇게되엇섯다 이러한時期에잇서서黨은 祕密히活動하지아니하면아니되엇섯고數多한××的機關이文化的社會的其他合法的機關으로交代된것도한必然的現象이다』『第二인터나쇼날』이 가장큰罪는그가그當時에議會的戰鬪形式을利用하엿다는點에잇는것이아니요그들이그戰鬪形式의價値를過大視한點에잇스니 이戰鬪形式을唯一한戰鬪形式으로알엇섯다그다하야明白한××的急變時代가到作되어議會以外에鬪爭形式問題가日程에올나은때에第二『인터나쇼날』의 諸黨은 새使命을拒絕하여버리엇다』(스타린)

前進할줄만알고 退却할줄을모르거나 鬪爭할줄만알고 妥協할줄을모르는者는 眞正한××主義者가아니다 二步前進을爲하여의一步退却과 큰鬪爭을爲하여의적은妥協은 때로는不可避할것이다 다만問題는『世上에는만흔妥協이잇다 몰아서우리는 各個의妥協 各種類의妥協과事情과 具體的條件을分析하고 그逮捕와射殺을容易하게하기爲하야 그盜賊에게金錢과武器를주는者와 盜賊과騷物을分配하기爲하야 彼等에게 金錢과武器를주는者를區別할줄알아야할것이다』(레―닌)

우리는언제든지『主義와政策을들어 論爭하게되어잇서서는될수잇는대로 感情에흘으지말어라』(前進會檢討文)할것이다 特히一九二六年에依하야提出된『運動의現實化問題』와『政治運動問題』는 現在의朝鮮運動에잇서서 가장重大한死活問題인그만치 冷靜한學究的探索과理智的批判이 잇서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正友前進間의論戰과一般의그에對한態度는그와正反對의感을가지게한다問題는脫線을重疊하는것갓고 感情과氣憤에흘으는感이잇다 正友會宣言은『그것이墮落한形態로 出現되지아니하는것에限하여는 積極的으로提携하리라』하엿고『大衆自體의奮鬪를主勢로하고 外交節解만으로써마칠러는形態의 政治的勢力에對하여는 最初부터싸우지아니할수업다』하엿는데 前進檢討文과無背決議文의大意는 國民協會一派의自治運動과類似한 墮落的屈服的形態의政治運動밧게잇슬수업고 그러한政治運動은 帝國主義勢力을援護케하는運動이되지못하고 돌이어그發展의方便을 補助하는運動이되는것인데 正友會宣言은 그를未然에助長하려하고 그와積極的提携하려『한다』하엿다 또正友會宣言은『우리가그것으로누리려는』

### 最大收穫은 改良的綱領

의實現에잇는것보다도 오히려그것을爲하야奮鬪하는中에서어더질 大衆의組織과訓練及敎育에잇는것이라』하엿는데 前進檢討文과無青의決議文은 正友會宣言을反對하는 가장重要한理由의하나로『設或朝鮮에잇서서 自治가實現되는날이잇다드라도 그것은 自治運動者의屈服的妥協的運動으로될것이아니요 그와正反對의非妥協的運動에依할것이라』(大意)하엿다 이것은確實히 將히正友會宣言이 朝鮮運動에잇서實로飛躍的大轉換이요 오래동안大問題를이르키어온朝鮮의『現實이許하는範圍內의政治運動』을提唱함에잇서서朝鮮의現實과 被壓迫民族及被壓階級의政治運動에 對하야 아모런明確한態度表示가업시 單只『우리運動身體가뻗서 從來의局限되어잇든經濟的鬪爭의形態로부터 그보다一層階級的이며 大衆的이며 意識的인政治的形態로 飛躍하지아니하면아니될轉換期에達하엿다』하엿스니『그것이墮落된形態로出現되지아니하는것에限하여는 積極的으로提携하리라』는平凡한말만하고말엇고 前進會檢討文이그를反駁함에잇서서亦是 殖民地及無產階級의政治的運動에對하야 冷情한分析的論究와理知的批判이업시 모든을屈服的墮落的運動이라는大前提下에包含식히어서悲憤慷慨한志士的氣槪만을 高調하고만感이잇는것은 甚히遺憾이다……(續)……

## 丁卯略史 (三)

△紀元三八四○年 (中宗二二)章敬后를冊封하다 史禍의冤을命雪하다 朴耕李顆의兩獄事가잇다 平安監司安琛이作成庫를設立하야學資를贍足케하다(日本後柏原天皇永正四)大內義興이義植을奉하고安藝에入하다(中國明武宗正德二)僧道四萬人을度하다

△紀元三九○○年(明宗二二)王이昇遐하시고嗣가업스니領相李浚慶이河城君을迎立하고大妃가政事를同聽하시다(日本正親町天皇永祿十)松永久秀三이好三黨을破하다(中國明穆宗隆慶元) 俺答이山西에寇하다(西紀一五六七)스곳트란드女王이『메리스케아른』등脅迫하야讓位하다

△紀元三九六○年 (仁祖五)正月에金(淸)이大擧入寇하야平山까지連陷하니江華에播遷하시고世子는全州에分朝하시다 三月에和議가成立하나金兵이退去하고四月에車駕가還都하시다 쬃城人李仁居가叛하나討誅하다 各道에營將을두고京畿江原咸鏡平安等道에防禦使를두고統禦營을두어舟師를統率하다 (日本後水尾 天皇寬永四)東 浦塞이互市를求하다 和蘭王書가來하다(中國明熹宗天啓五) 淸兵이錦州를圍하다 (西紀一六二七)『유ㅅ노』가英國援助를憑藉하고佛王과戰하다

△紀元四○二○年 (肅宗一三)萬壽殿과恭陵에火災가나다淸聖廟를海州首陽山에세우다潭天機를重修하고齊政閣을세우다 李實鎬言命改가生하다金萬基는卒하다(日本靈元天皇貞享四)東山天皇이受禪하다(中國淸聖祖康熙二六)淸露議和가成하다 (西紀一六八七)『유니쓰』人이『아데네』를攻畧하다

△紀元四○八○年 (英祖二三)籍田監刈禮를始行하다 政經을命刊하다 六臣墓碑를命建하다 朴性源이華東正音通釋韻考一卷을지다.(日本櫻町天皇延享四)貞享曆을改하다 關白道香이攝政하다 九月에桃園天皇이卽位하다(中國淸高宗乾隆十二) 通典通志文獻通考를刊行하다(西紀一七四七)『회니스텔』海戰에英海軍이佛海軍을敗하다

△紀元四一四○年(純祖七) 華城遲運臺에碑를命竪하다 金鍾秀의官爵을追奪하다 李審度가時僻源委를跳論라가被誅하다(日本光格天皇文化四)西蝦夷地를公收하다 露人이蝦夷에入寇하다 (中國淸仁宗嘉慶十三) 李長庚이海賊을討伐하다가戰死하다 (西紀一八○七) 佛露普間에『질짓트』和約이成하다 拿巴崙이왈소公國을建設하다 米人이『후루톤』汽船을發明하다

△紀元四二○○年 (高宗四)露西亞人이慶興에投書하니道臣에게命查하다 六典條例를頒行하다 小錢(淸錢)을通用하다 秋에 景福宮이落成되다 (日本孝明天皇이崩하고明治天皇이踐祚하다 山內豐信이大政奉還을勸告하다 討幕密勅이下하다 王政復古의大令이下하다 關白을廢하고總裁議定參與의三職을置하다 (中國淸穆宗同治六) 劉銘傳이東捻을破하다 東浦塞가佛의保護國이되다(西紀一八六七)墺帝國이墺匈國이되다 巴里博覽會가開하다


靈光

靈光郡白岫面大田里 池龍會

靈光郡白岫面大田里 池斗杓

靈光郡白岫公立普通學校 校長 谷善雄 敎師 金栢鎬 韓三用 金鍾厦

靈光郡白岫面大田里 表吉煥

靈光郡佛甲面事務所 面長 鄭寅壽 會計 姜星國 鄭寅鐸 書記 柳相稷 丁允京 丁炳宅

靈光郡佛甲面富春里 梁圭鈺

靈光郡佛甲寺 住持 金永允

靈光郡佛甲面富春里 金權燮

靈光郡佛甲面富春里 丁京凡

靈光郡佛甲面富春里 丁兌秀

靈光郡畝良面事務所 面長 李明燮 會計 李宗煥 丁麒秀 柳仁基 書記 姜民秀 李龍淵 柳相斗

靈光郡畝良面雲堂里 李文鳳

靈光郡弘農面事務所 面長 文鐘大 會計 鄭仁培 書記 房東權 李極振 李洪珪 河宗太

靈光郡弘農面丹德里 全宗澤

靈光郡弘農面丹德里 李康明

靈光郡弘農面丹德里 李晃儀

靈光郡弘農面月岩里 李廷成 吳壽煥

靈光郡弘農面月岩里 金東烜

靈光郡 法聖浦金融組合

靈光郡法聖面事務所 面長 朴鋼官 會計 曹永玉 書記 白南鍾 梁喉錫 崔安石 金俊燮 成百樂 南宮娠

靈光金融組合

靈光邑內 靈光自動車部 主 曹健鉉 主務 柳一 電話六番

靈光水利組合 電話九番

002249

靈光郡廳職員一同 靈光郡產業團體職員一同 電話七番

靈光郡守 權重植 電話一七番

靈光公立普通學校 電話二一番

靈光邑內 前博士 曹喜暻 電話一五番

靈光邑內 技師 曹喜陽 電話二五番

靈光警察署 電話四番

靈光面事務所 面長 金顯組 會計 朴東泰 白南振 書記 鄭淸善 金宗成 書記 金永實 技手 曹復鉉 丁永秋 電話一四番

靈光邑內 公醫 牧駿 電話二九番

靈光邑內 鶴山醫院 院長 張逵燮

靈光邑內 種苗桑苗林苗其他 郡指定販賣 鶴川農場 主 曹喜暻 主任 曹喜栢

靈光邑內 米穀肥料叺貿易商 許鈺商店 電話一三番 振替京城一四、五六番

靈光邑內 鄭泰熙 電話一六番

靈光邑內 明範商店 主 文明佐

靈光邑內 珍明小作人組合

崔相坤

靈光邑內 東 印刷所 主 片書鉉 電話二八番 振替京城二□一二九番

靈光邑內 靜日雜貨 許鍵商店

靈光邑內 雜商 東順興

靈光邑內 米穀商 許銓 電話三六番

靈光邑內 司法代書人 文昌鎬

靈光邑內 金銀美術品製造販賣 金光商店 主 盧溶

靈光邑內 時計鋪 勝美堂 主 朴東煜

靈光邑內 鄉校旅館 主 朴文玉

靈光邑內 各種고무靴販賣店 金英斗

靈光邑內 便利靴改良靴製造販賣並고무靴 曹學煥商店

靈光邑內 和洋堂菓商店 主 梁禎讃

靈光邑內 崔鳴鍾

靈光郡廳 商業技手 鄭錫柱

靈光邑內 田中隆男

靈光邑內 米穀商 鄭東植

靈光郡郡南面事務所 面長 曹熹鶴 會計 鄭東俊 書記 殷成楫 李基采 徐判鉦 曹象鉉 技手 鄭涌三 金[illegible]縉

靈光郡浦川場 水利殖產組合

靈光郡南面雪梅里 高永鎭

靈光郡郡南面東湖里 金鍾侯

靈光郡郡南公立普通學校 校長 尹相模 敎師 趙雄厦 朴松烈 鄭景鉉

靈光郡浦川場 自轉車修繕並販賣店 金基順

靈光郡郡南面 金思郁

靈光郡郡南面 朴判成

靈光郡浦川場 共益商店 主 尹大重

靈光郡大馬面事務所 面長 書記 會計 山監 金桂鎬

靈光郡大馬公立普通學校 校長 稻數茂 敎師 朴新權 敎師 金遠晟

靈光郡大馬面南山里 李禹相

靈光郡大馬面月山里 李起璇

靈光郡大馬面福坪里 李炯宰

靈光郡大馬面福坪里 沈一澤

靈光郡大馬面城山里 李秉

靈光郡大馬面禾坪里 潘正彬

靈光郡大馬面福坪里 李址衡

靈光郡大馬面城山里 李康夏

靈光郡郡西面事務所 面長 李瑞一 會計 丁炳瑄 書記 金承煥 鄭向源 金泰灝 鄭吉休 金星吉

全南農產合名會社 靈光郡郡西面月谷里 朴正煥 朴寅煥 電話四一番

靈光郡郡西面綠沙里 金奉燮

靈光郡郡西面萬金里 殷貴秉

靈光郡郡西面馬邑里 金台煥

靈光郡白岫面事務所 面長 池龍會 會計 大一宣 書記 朴東烈 池雲燮 鄭寅焦 曹忠煥 鄭泰稷 張祺勳 技手 白致圭 山監 徐祥俊

靈光郡西面月谷里 小作人信融組合 組合長 殷貴秉

靈光郡西面南竹里 崔光淑

新灘津

新灘津分局長 金隆植

新灘津金融組合 高岡萬鉉 韓致

新灘津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大田郡北面事務所 職員一同

新灘津驛前 窯業製造 長尾義八

京釜線新灘津驛員一同

新灘津驛前 山一運送店 金在得

新灘津驛前 ㈜大成運送店 吳熙政

新灘津驛前 ㈾運送店 方從煥

大田郡北面龍湖里 李鍾泰

新灘津理髮所 李圭復

新灘津驛前 李英鎬

大田北面石峰里 朴春緒

大田郡北面文坪里 部落養蠶組合長 崔鍾奎

新灘津驛前 柳在實

新灘津驛前 陶器製造業 朴在石

大田郡北面美水里 陶器製造業 金順明

大田郡九則面事務所 面長 李鍾九 會計員 梁秉詰 書記 鄭在賢 朴成癸 在運 郡農會駐在技手 朱榮夏

大田郡九則面學術講習所

大田郡新灘津 國章舖 康秉薰

大田郡九則面鳳山里 曺基

大田郡九則面田民里 朴喜榮

淸州郡賢面鄭地里 吳熙

◇近世朝鮮新聞發行의嚆矢인漢城旬報第一號와木板挿畵地球圖

# 漢城旬報

第一號 朝鮮開國四百九十二年 癸未十月初一日

統理衙門博文局

# 朝鮮新聞史論(一)

安民世

## 一、小引

푸른물결위모래가 질펀하게 널린곳에 鵁鶄雁鴨의자최가어수산하게박힌것을보면빗긴바람가는비 맑는달밝은바람알에서無數한禽鳥들이 놀고간터전인것을읽을수잇다 다바솔녹어진속에 녯의보금자리를뒤지고 沙汰난굴엉에서사슴의발자옥을보며 崢嶸峰바위들틈에부엉의터쒸어를指點하고 깁흔山길은골天日이暗澹한곳에서 독기마즌老木을맛나서는거칠은興味깁흔追憶도일으키고 반가운情緖가솟아나니이도또한鳥獸와人物들이 그生活의자최를남겨둔記錄인外에아니다 文字以前의功勳와使命은이러한數種의일에서도暗示를바들수잇는것이니 그는指今支離하게말하지아는다 昔者鴻荒한世紀에 일즉文字가업섯슴으로 人文의發展은遲遲하야나갈출이업섯고고의後代에의傳授도繼承도자못滅裂하야볼만한바업섯나 맛簡易한符號인原始文字가생기고 그것이다시各種의文字로되어서記錄과敍述이잇서온後로 人文의進步도因하야前日보다빗낫섯고 製紙의業과印刷의術이아울러發達되어 各階級의사람들이모다읽고보는便宜를엇게되어미처서人文의發達은비롯오所謂長足의進步를이루엇다 만일通信의網과輸送의機가敏速한活版機械의術을利用하고 新聞의發行이一日數十萬部식을算하게되는에미처서는 天下의耳目이新鮮하는바影響도이미녯文化圈에주는바아니라할것이다新聞이란者는 人類生活의記錄과敍述의가장進步된方式이요 또民衆化한最大의機關인것을!그러면이가장進步된方式과 最大한威力을가진民衆化한機關으로서의新聞은 그의社會民衆에게關係되는바가자못重大하다할것이다 이에朝鮮新聞史論을述하니 그實가또한이러함을因함이다

## 二、官報本位의新聞―甲午以前의朝鮮新聞

世界新聞紙의起源이모다官報에잇섯든것은史實이證하는바이라 昨秋本社新築落成記念의배에崔六堂氏가이를敍述하야거의다하엿다 『開元雜報』는唐玄宗의時代(西紀七一三―四一)에發行되어 世界上報紙의嚆矢가되엇고追後로『邸報』或『京報』의名稱으로 各地의藩鎭이詔令章奏等을傳抄하야 키곳으로速報케하든것이 또그의一種이엇스며『朝報、新聞、新報』의名稱이宋代를通하야各種書籍에나타낫섯스니支那에잇서서의新聞의歷史는그由來가자못오랜것이오 西洋에서는 羅馬時代의官報의發行으로써濫觴한新聞이十六世紀以後에일으러차차繁盛하여젓다하엿다 朝鮮의報紙도官報로써비롯하니 支那의邸報와 한가지인『朝報』이란者!이것이오 高宗帝二十年癸未十月初一日에博文局의新設과함께刊行된『漢城旬報』는近代式인新聞의代表的인者이다 宣廟朝十一年戊寅(西紀一五七八)에遊手輩가政府의許可를어더서朝報를印行하야팔아서資生하다가行한지數月에上의探聞하신바되어震怒함으로遠流하엿다하니이것이吾人의아는바朝鮮報紙發行의嚆矢라할러이다 다만이는一時的일이엇고中斷되어

**累百年** 에다시繼續이업섯스며지금에그文獻을어들수업스니博文局의設置와함께생겨난漢城旬報로써그代表的인者이라아니할수업다 漢城旬報는名稱과가티十日에一次식刊行하니『內國記事』로서 勅諭와議政府以下各府及衙門또는監司其他軍民長官들의狀啓와『雜誌瑣聞』等의名目으로京鄉을通한『市直探報』라는名目으로日常生活에需用되는市場物價를報하엿스며『各國近事』로서東西各部洲와및內外諸國의消息을揭載하엿다 그는勿論純漢文이엇고重要한記事는大部가評論體이엇섯다 그리고漢城旬報의創刊辭인『旬報序』와가튼것은마치儒家經傳의序文을읽는것과가티 典麗莊重한文章으로써되엿다 이케그槪要를紹介하면『禹鼎示象 周官辨土 要荒之外 槪不及焉 蓋以山川限隔 聲軌不同』等의文字로써始作하야『今風氣漸闢智巧日長 輪舶馳騁寰瀛 電線聯絡西土』라고古今時代의變遷과世局의現勢를叙述하야報道機關의必要한所以를말하고『朝廷開局設官 廣譯外報 並載內事 頒示國中』이라하야 政府로부터創設하는官報式의또官報本位의報紙인本領을 잘說明하엿고『可以 關照 [illegible] 之靄 又未嘗不 行乎其間也』라고하야다만所謂社會의거울이라는報道本位의新聞일뿐아니라勸善懲惡에置重하려는本旨를밝만하게되엿다 高宗帝甲子踐祚以來로近世朝鮮史의序幕이시작된前後의事情은 이에서論述할必要가업시마는 同十三年丙子에朝日修好條約이成立되어비롯오開國進取의國策이

**形式上** 으로나마決定되엇고 同十八年辛巳에는朴定陽 趙秉稷 魚允中 洪英植等有爲한人物로日本을遊覽케하며 十九年壬午에는統理機務衙門이設置되고 日本人掘本禮造의別技軍訓練과 士官生徒의養成이잇서서 軍政의改革이잇는한便으로 所謂壬午軍亂이란者가생겨서 吳長慶의領率한淸兵의朝鮮駐屯이잇섯고 이해로부터元山의開港과 朝美條約의締結과및統理交涉通商衙門의設置가잇서서 어쨋든外國文物의輸入에努力하든판이며 더욱히二十年癸未에는 朝英 朝獨條約의成立및仁川의開港과함께 機器局典圜局 博文局等의設置가잇서서 泰西文物의輸入에銳意하든가든觀이잇섯다 내개當時에는그前年인壬午軍亂의뒤를이어政界에는守舊黨 獨立黨의對立이생겻고 獨立黨의日本勢力의利用策은자못露骨的으로되는바잇슴에이다 井上角五郎이日本의一要人으로서 博文局에招聘되어漢城旬報의創刊의事務를擧하게되니 近代朝鮮新聞의開創者의功勞가日本人에게돌아갈도奇異한일이라할것이다

## 三、紙面을通해본當時의時代相

官報本位로되엇든當時의新聞은嚴格한意味로보아서 現代式의新聞이라하기보담은 차라리官報本位의雜誌로봄이조켓다 그리고紙面을通하야나타나는當時의時代相도오늘날로보아서퍽興味만흔바가잇다 그第一號에나타나는것부터 一部式紹介하건대癸未八月二十八日에協辦交涉通商事務穆麟德이『奉上旨 購十二馬力火輪機器一隻于上海』云云의事實을揭載하야 已가을에領選使金允植 從事官尹泰駿이學徒工匠들을거느리고中國天津에가서 機器學(兵器學)을學習하야卒業코저하다가壬午軍亂의急報ㄷ蒼皇히歸國하든顚末이든지『庶事草刱 難望急切之效』라고庶政改革의功績이遲遲한것을慨歎한것가튼것도多少의感觸조차잇게한다『市直探報』로써『立廛』條에帽紬一尺價五兩五分 甲紗一尺五兩 『白木廛』에上木每兩五尺 中木每兩七尺 常木每兩九尺 『米廛』에上米一升(火印)五錢五分 中米一升五錢 下米一升四錢九分云云한것가튼것은 今昔物價變動史로보아서도興味만흔바이오 英國의各大學에서『漢學一科』를設置한다는 消息을紹介하고『可謂 漢學之西行 而天將以斯文 啓全地球之奎運也』라고『斯道』의發展을爲하야 隨喜한形跡이잇스며 琿春方面의『俄人』들이『招撫該處附近 高麗人民―已有數百餘家』라고하야 朝鮮人北方移住의狀態가 이미尋常치안흔것을보여주엇고 『安南事起源』이라는題下에는 淸咸豊八年以來法人의 安南侵畧의 顚末을敍述하야法國橫暴의미워함만한바를斷言하고 『日本瑣聞』의題下에는『日本參議伊藤博文이 歐洲로부터歸來한事實』을쓰고 『義時日本皇帝特勅全國臣民、期以庚寅年設立君民同治之政』云云의說明을부치어서

**憲法發表** 國會設置를準備하는明治十六年當時의日本의事情을紹介한것이 今日의吾人으로보아서 퍽마음을끌만는바잇다할것이다『緬甸、亦亞細亞南邊之一國也』라는지『安南國亦東洋之一國』이라고색다른나라들의位置와同情이 全혀서두르든當時에잇서서 初等萬國地理의內容과맛걸리는程度의說明外지부티고 衆하야『地球全圖』라고東西兩半球로나누어그린木板印刷의挿圖를실은것이든지『地球之體、圓如橙』이라고시작하야天圓地方의傳統的觀念을깨트리려고 滔滔數千言의辯證文을쓰고『論洲洋』이라는題目으로五洋六洲의分布된大勢를支離하게註釋한것가튼것도 苦心한자최가뚝뚝하게보인다할것이다 要컨대官報를本位로한當時의新聞은文化的으로는 全然히啓蒙機關인觀이잇섯든것이다 이에오히려煩瑣함을不計하고當時記事의種種을紹介하면 中國廣州一境에서南洋火山爆發의 情況을바라보든感想을紹介하엿스되『夜靜六時 諦見卜 紅光燭天 如是者三夜 覩者無不驚訝 是何祥焉 請以質諸占候家』라고매첫다 火山의智識이업는當時의士女들이이想外의怪現象에接하야뷰득偏天의霹光으로速斷하고陰陽家의解說을期待한것도興味깁흔일이다 同年十月初六日『議政府草記』로서『明火放砲 不分晝夜 到處劫掠 無所顧憚』이라고 날로甚하여가는匪賊으로因하야行旅가 阻絶됨과公納이滯納됨을徹實하엿고 經略使魚允中에게狀啓로써『關北撫兵之地、錦綺顆丸 宜備多數』라고北方軍備의허롬이할수업는것을高調하고『新設鍊軍 二百五十人 演習日久 餘餉宜念』이나고督促한것이라든지平安兵馬節度使李鍾健狀啓로서『李邊府 國東軍兵 四朔操鍊 就其中一朔移操於藥山山城』이라고하고

**日本兵備** 의完全하여가는狀況을例로써『歲增守兵 屯田久駐 操鍊無虛日 誠達國也』라고朝鮮兵備의疎虞를反覆慨嘆한것은 開國進取하야國力의發揚을박부게생각하든獨立黨先輩들의憂心忡忡한바로읽을수잇다 하물며英 法列國이緬甸 安南으로부터 中國의領土를엿보면서 復數年에濟州島의南方 巨文島의占領으로 朝鮮國際史上의 一大危機를오게하려든때에맛나서 西勢東漸하는情況을점점으로報道하면서 新興하는日本의政治改善과武備刷新의實情을紹介하기에 게을름이업든것을보면 當時의時代相이어떠하엿다는것을보기에足하다 最終으로當時米國의駐紮朝鮮全權公使『福德』氏가 最初西洋에가는朝鮮使節은 그本國에紹介하는文字를譯敍한것이 一般의興味를끌음만하다『…寔爲該國(朝鮮)人出洋之始…凡諸歐洲之得失 貿易之盛衰 次第說道 傳知 令朝鮮 躋於開進之上級』云云하야일즉米國이日本을世界에紹介하야 鎖國의陋習을버서버리게한것과가티 朝鮮을世界에紹介하는것도米國의責任이라고 朝鮮을國際的一小兒외가티取扱하면서指導啓沃을하여야하겟다한態度도興味잇고 으로는『且農桑之利 礦山之富 猶我合衆國最富之省 而全國人口實爲一千五百萬者、數亦不少』라고通商交易과밋利權啓發의利益을爲하야서도決코朝鮮을 等閑히하여서는아니될것을力說하고『冀我政府、原遇使節 一如歐米列强之例 勿有疎略』하라고丁寧付托한것은會그머니今昔無限한感慨를자어내는바도잇다 左右間에內政에잇서서農桑 礦山等產業의啓發과人口 統戶等民政의 改新을圖하고 밧그로支那 安南 緬甸 印度等의危急한狀況과밋泰西列國兵備의成立한것을 指摘하고新興日本의國情의變革됨을例證으로하야금危害를未然에 防止코저하는苦心의자최가곳곳에들어난다할것이다 이것은紙面을通해서보는當時時代相의 大觀이라할것이다 이제그紙面에나타난 官職및人員의氏名을一瞥하더라도 當時事情을彷彿케하는바이잇스니

**統理軍國事務衙門** 督辦掌內司及諸司事務 閔台鎬 督辦利用軍務二司事務 金炳始 이밧게農商 工 典選等의督辦으로趙寧夏 鄭範朝 金有淵等이오 尹泰駿 金允植 朴定陽 韓圭稷 魚允中等이協辦이엇고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諸司事務 閔泳穆 協辦掌交司事務 金宏集 그리고穆麟德 閔泳翊 金玉均 洪英植 金晩植等의名字가나오고 그보담도더욱잘當時의國情을 表示하는것은『國內各稅務司』의各國人配當狀態이니

京城
稅務司 澳國人 夏士
幫辦 美國人 麥倍時
英語敎習 英國人 奚來百士
幫辦 德國人 安樽
幫辦 中國人 吳仲賢

仁川(重出國名略)
署稅務司 俄國人 裵巨富鐵
幫辦 法國人 羅布退
驗貨 意國人 富理安來
釜山 理船廳 荷國人 蒲是廉時
元山 指泊所 丹國人 瓦甫退

이外에日本人으로서在職한者를除外하고무릇六十個國三十餘人의在職者가列名되엇다

# 小說 誘惑(二)

李箕永

『애―그러지말고 커리조가자유나 딱한말이잇다!』

『그럼 여기서 말!』

『이런행길에서……』

『그래정말할말이잇서?』

『그럼 내가은제그짓말 하데』

『아니 그짓말하시안것남……그은제인가한번도딱한말이잇다고날울을고가든니언저우만나는말이『나는죽겟서……』하지안엇남!』

『쉬―아니그때는 그랫나마는지금은 참말이다 아니다면비아놈이라 맹세라도하지』

『네가지것가튼아놈을해서 무엇하게!』

『아―뭐시엇재?……』

옥단이는또우섯다 그의흰니속이달빗에 빗낫다 그는살작이뒤를따러섯다 그들은개울건너솔밧속으로향하여갓다

『아니어듸로작구가?춥구만』

『봄바람은 첨의죽은귀신이란다!』

『뭐―기에는별소리두다차빈』

『무에별소리야 품안으로작구기어드낫서 춥지안호냐』

『호―……호―왜 쳐은 작구기어드는거지가?』

『그럼 품안으로작구기어드낫다』

『가 산애가반한단다 자―여겨』

『호……호……』

가 안는것을보고 옥단이도따러삼석이가 잔솜보기및 바위우에안젓다

『자 어서말해!』

『가만잇서 숨이나 좀돌려지―너그날 레빠당에는 엇재갓섯니?―그런에는 구경오래도 한번도안오더니』

『한번도안가보앗길네갓지!』

『그래그날무엇이그중조테?』

『내가아니?―다조터라!』

『나는 너학생들의 창가하는소리가 제일조터라!』

『목사아들이 하던것은?』

『그와지것은―나는 그자식은 보기실타!』

『왜?너보다잘나서?』

하는 옥단이는 삼석이를흘킈는수작―

『나보다잘낫스면 보기실켓니 어른가티 존대하지』

『그래도 너보다도잘낫지뭐―너는 첫머무식하지안으냥?』

『무식해도 그자식보다는낫단다―사내자식이 진둑하지못하고 할미새생지가티 촐랑대는자식보다는―』

『호호호 구령이가 제몸조다더니 너혼자만 잘낫다구연니면되니? 세상사람이 모다못낫다는데―』

『그러치만나는 세상사람들이 누가잘낫네 누가못낫네 하는말을 도모지 대중할수가업더라 잘낫다는사람은 거지새기가티약은 엇정이패들로고하는말이니말이다』

『약은것도잘난것이지』

『약은것도 올케약으면쓰겟지만 남울쇠겨먹고 빼서먹고하냣가말이지―일울러이면이동안으로두고보지팡춘이정케하고 김농지집을―』

『그러키에 잘낫다지 윈동리가모다 가난한데그이네는잘사낫가―』

『그것은 도척놈으로도 잘산다고는일지언정 사람으로는잘난것은아니란다 그러면 엇더련지 잘살기만하면제일이란 말이냐?』

『그럼 지금세상은 돈이 제일이아니냐―우리아버지도돈배문에 죽엇단다!』

하는 옥단이는 별안간고개를숙느리트렷다 과연옥단이 아버지는 남의빗에졸려서 화중이난다고 소주한사발을드리켜고 펄펄뛰다가죽엇다


# 木浦支局發展

靈岩郡昆二終面 崔奇洪
靈岩邑內 藤中米吉
靈岩郡 靈岩面職員一同
靈岩郡廳
靈岩郡靈岩邑內 兵頭一雄
靈岩會門里 金龍善
靈岩郡 郡西面職員一同
靈岩郡昆一終面 金相植
靈岩郡長川公普校 金昌錫
靈岩郡長川公普校 李德八 全佶煥
靈岩郡昆二終面牙川 李允宇
木浦府大和町 雜商 永成仁 長電話五三
木浦府大和町 雜商 新成號 主王國祥
木浦竹洞二六 中華料理 德盛棧
木浦竹洞九三 中華料理 德和樓
木浦南橋洞務安廳前 中華料理 德興樓
木浦南橋洞 中華料理 群仙閣 主 高紹繹
海南郡黃山面牛項里 李喜鎔
海南郡廳職員一同
海南三山四松汀里 李元鎔

海南北平面 文相炫
海南右水營 青木佐市
海南 千善才
海南北平面 金大鴻
海南右水營 李香彥
海南北平面雲田里 申欞
海南北平面雲田里 申淞
海南大興寺 長春普通學校
海南黃山面 面長 李鍾睦
海南黃山面牛項里 金堯甲
莞島郡邑內 莞島面職員一同
莞島郡邑內 莞島警察署
莞島郡邑內 信一商會
莞島郡邑內 莞島運輸株式會社
莞島郡郡外面事務所 面長 崔成春 書記 姜今先 書記 朴在薰 書記 朴順五 書記 金順奉 書記 洪正範

莞島邑內 莞島金融組合 職員一同
莞島郡邑內 蘇鎭春
莞島面館井里 蘇良三
莞島郡智山面長 曹秉井
莞島郡島面長 金鏞柱
湖南線木浦驛前 計算會社加盟店 運送同友會加盟店 金南商會 海陸物產 委託賣買 金錢貸借 鐵道貨物 運送取扱 普信運輸組 店主 李祥 張玫煥 長電話三四四番 電略(ナン)又ハ(ヨ)
木浦福山町二三 宋昌權 電話七六二
木浦港町 棉花商 金吉用
木浦竹洞 金明均
木浦北橋洞 金泓謙
木浦榮町二丁目三 徐在浩商店
木浦壽町二丁目三 三助商店 張和寶 陳奉洪 千秉權
木浦台三 帶月旅館
木浦海岸通一丁目四 繰綿工業 鄭三凡 金明得 崔汝一
木浦壽三 錦城旅館 主 趙準彩
木浦大成洞 金德仲
木浦大成洞 金瑤草
木浦南橋洞一四七 李清海

木浦北橋洞 崔陽相
木浦南橋洞 南興洋服店主 金璘順
木浦北橋洞 鄭麟采
木浦竹洞 金完植
木浦竹洞一八三 金鳳魯
木浦務安通 金弼鎬
木浦南橋洞 崔成吉
木浦南橋洞 玄龍鎬
木浦大成洞 金淡龍
木浦北橋洞 金源喜
木浦竹洞二三 南鮮旅館
木浦務安通 行政司法代書人 金武賢
木浦務安通 梁炳震洋靴店
木浦竹洞四一 希木商 蔡平善
木浦竹洞 史演奎
木浦竹洞一四〇 洪在竑
木浦務安通一二 各種鍮器 各色粧飾 都賣散賣 主 金祥奎
務安郡安佐面 金琮基

木浦竹洞 濟衆醫院長 任實宰
木浦竹洞二一 大昌洋靴店 主 金秉熙 金九文
木浦竹洞六四 東亞醫院長 金命峻
木浦常盤町二丁目一二 洋靴製造 旅行具及革鞄製造 椅子修繕 高鎭燮商店 電話七三四
木浦竹洞二五 印章彫刻名刺印刷 金銀細工眼鏡佩物 金長源
木浦昌平町六 精米業 崔守鳳
木浦 金文玉
木浦南橋洞 金鍾沂
木浦竹洞二三 司法代書人 朴龍載
木浦竹洞二六 綢緞布木各種雜貨 金永釆商店
木浦竹洞 學校評議員 朴鍾悳
木浦榮町 海陸物產 委託貿易 金弘鉉 梁斗錫 金信鉉
木浦竹洞 昇平醫院 金桂洙
務安郡荏子面鎭里 鄭泰成
木浦臺 金陵旅館
木浦驛前 李善弘
木浦務安通 永信商店
木浦竹洞三四 永明館主 朴永根
木浦南橋洞四二 客主 李根雨

木浦竹洞二二 司法代書人 延秉[illegible]
木浦 金容[illegible]
木浦北橋洞 鄭鳳澤
木浦福山町 綢緞布木內外雜貨 海陸物產委託販賣 海東學特約大發賣 大昌號 主 李敬倫 電八〇六
木浦賣町 朴正允商店
木浦北橋洞 朴信用
康津郡邑內 金忠植
木浦竹洞四 乾材局 柳官五
木浦竹浦 木浦劇場 主 柳官五
木浦福山町 合資 青田印刷會社 電話七一二
木浦壽町 朴正基
木浦祝町 金晶泰
木浦曙町 朴元植
木浦臺二 客主 高濟蘭
木浦南橋洞 宋文玉
木浦湖南町 富蘭翠病院
木浦南橋洞一三六 辯護士 金明鎭 電話五二
木浦壽町 客主 安龍圭
木浦物產問屋組合 代表 李潤源

# 文藝

## 時調와 漢詩

李秉岐

一

李白의詩나 杜甫의詩를 보다가 서로가튼詩人句를 어더보기도하엿다 一例를들면 李白의 送張子還嵩陽詩의 結句에『何時一杯酒更與李膺同』은杜甫의 春日憶李白詩의 結句에『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과도 李白詩의『不向東山久』는 杜甫詩의『不見李生久』와 서로갓지안흔가 과연 詩人이意思同이다 李白과杜甫와는 거의反對의性格을가젓다할만한詩人이지마는 이와가티서로가튼詩人句가 잇는것을보면 가튼나라가튼時代의詩人뿐아니라 時代나나라가서로 다른詩人外지라도 서로가튼意思들가지고 지은詩人句가적지안흔줄을알것이다 그리고또 李杜와가튼 大詩人으로도 터러換骨法이나 奪胎法을쓴것이 잇다하지마는그러타고그것이또創作이아닌것아니며 名作이아닌것아니다 李白詩의 有名한 黃鶴樓詩 孟浩然之廣陵에

『故人西辭黃鶴樓
煙花三月下揚州
孤帆遠影碧山盡
惟見長江天際流』

는詩經의『二子乘舟 汎汎其景 二子乘舟汎汎其逝』에서 뜻을어더왓다하며 杜甫詩의有名한 登岳陽樓에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

는 水經注의『湖中 廣圓五百餘里 日月若出沒于其中』에서 뜻을取하여썻다하나니 만일古人의意思를 하나토아니쓴다면 李杜도 그러한大詩人을될우지못하엿슬것이다

다시말하면詩人의詩에는 詩人이意思同으로써 서로偶合한것도잇고 또는換骨法이나奪胎法으로써翻案한것도잇슬것이다

二

그런데 우리時調와 漢詩가 워낙부터 서로다른것임은더말할것도업지마는 이또한詩人이意思同으로 서로가튼것도업지안흐니가령 우리時調에

『말드자 배떠나니
이제가면 언제오리
萬頃 蒼波에
가는듯 돌아오소
밤人중만 지국총소리에
애씃는듯、하여라』

하는것은 孟浩然의 絶句十四之南江에

『潮吳相接水雲鄕
君去春江正淼茫
日暮征帆何處泊
天涯一望斷人腸』

이라는詩와 얼마큼가튼意思를볼수잇스며 또한金秋史(正喜)가濟州에잇슬때 要喪을當하고 그悲絶한뜻을適切하게表現하엿다고有名히닐것는 悼亡詩에

『那呼月姥訴冥司
來世夫妻易地爲
我死君生千里外
教君知我此時悲』

라하는것은 古詩調에서보이는

『우리둘이 다시생겨
네나되고 내너되어
내너그려 굿든애를
너도날그려 그켜보렴
평생에 내슬워하든줄을
몰려보면 알리라』

하는것과 얼마나 다를것이잇는가 그러나 이런時따위는그어느것을 原詩라하고 어느것을 翻案한것이나 翻譯한것이라고斷言할수업스며 李退溪(滉)의作인

『淸凉山 六六峰을
아는니 나와白鷗
白鷗야 헌사하랴
못미들손 桃花로다
桃花야 떠지지마라
漁舟子알가하노라』

하는時調는 宋人謝枋得의慶全庵桃花詩에

『尋得桃花好避秦
桃紅又是一年春
花飛莫遣隨流水
怕有漁郎來問津』

이라하는것과 비슷하고

『겨울날 다시한벼를
님에게비최고저
봄미나리 살진맛을
님에게 들이고저
님에야 무엇이업스랴마는
내못니저 하노라』

하는時調는 杜甫詩에

『炙背可以獻天子
美芹由來知野人』

이라는것과 비슷하다 마는이時調들이 과연 漢詩를翻案한것인지는모르되 무그것을翻譯한것이라할수는업다 日本俳聖이라고닐것는 芭蕉의作인俳句에

『枯枝に烏のとまりけり秋の暮』

라는名句는「枯木寒鴉」라는文字를翻案한것이라하여 노픈價値가업는것이아니다 무론이따위時調들은 이미漢詩에그와가튼것들이잇스나 純然한創作이라고는볼수업스나 『枯木寒鴉』를翻案하엿다는 芭蕉의俳句처럼名作이아닌것은아니다 그중에도 退溪의淸凉時調는自己시골近處에잇는淸凉山(寧化郡才山面)을材料를삼어 지은것이다 奇絶한大인데 退溪가이곳을보고는째 이곳에서 白鷗도보고 桃花도보고 겸하여晋人陶淵明(潛)의 桃花源記의생각도 자아내어 이런時調를지은것이다 이桃花源記야말로 唐人王維詩(維)의作인 桃源行따위와가티 그原意를翻하여지은詩篇이 하나둘만아니다마치쇠랑랑집에서 쇠벽따귀를우려먹듯이 陶淵明以後의여러詩人들이 桃花源을가지고여북썻는가 그例는이루다 들수업슬만콤만히잇는것이다 이런글도밉워보면

「겨울날 다사한벼를
님에게 비최고저」

가비록 『炙背可以獻天子』의 翻案한것이라하여도 時調만 되엇스면 언잔흘것이업다

三

그런데 우리의노래들은 訓民正音頒布하기前에는 吏讀文으로적어왓고 訓民正音頒布以後에도 正音으로적은外에 吏讀文으로나 또는 漢詩로翻譯한것도만타 노래에는 詩라는더구나 漢詩로翻譯한것이만타 가령 陜閣鑽餘에적힌 李太宗과 鄭圃隱과의 和答한時調를보면 太宗의作인

『이런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하리
萬壽山 드렁칡이
얽어진들 엇더하리
우리도 그와가티얽어저
百年까지 하리라』

는것을 漢詩로

『如此亦如何
如彼亦如何
萬壽山葛蔓亦如何
我輩亦如此
百年享如何』

라翻譯하엿고 鄭圃隱의作인

『이몸이 죽어죽어
一百番 고처죽어
白骨이 塵土되고
넉이라도 잇고업고
님向한 一片丹心이야
가실줄이 잇스랴』

는것을 漢詩로

『此身死復死
百番更死了
白骨化塵土
不論魂有無
向君一片心
寧有變移理』

라翻譯하엿고 於于野談을보면 明將楊經理가 行軍하여 南來柵를지날때 밧매는 男女들이 목을어울러 무슨노래를부르거늘 經理가둣고들은대 接伴使 李白沙(恒福)가漢詩도翻譯하기를

『昔日若如此
此形安得持
愁心化爲絲
曲曲皆成結
欲解復欲解
不知端去處』

라하여보이니 經理가보고 칭찬하며 각기宵布一疋을주엇다한다 이것을다시 時調로옮기보면

『비人날도 이렛스면
이모양 못진이리
시름이 실이되어
굽이굽이 매치세라
풀으려 풀으려한들
긋간데를 몰래라』

라할것이며 또古時調에

『芳草 욱어진곳에
시내는 울어예다
歌臺舞殿이
어데어데 어데메뇨
夕陽에 물차는제비
네야알가하노라』(滿月臺)

하는것을漢詩로

『芳草萋萋滿故城
故宮風景使人愁
歌臺舞殿今何處
掠水夕陽鷰子知』

라翻譯한것이잇고

『간밤에 부든바람
滿庭桃花 다지것다
아이는 뷔를들고
쓸으려 하는고야
落花ㅣ들 꼿치아니랴
쓸어무삼 하리오』(滿庭芳)

하는것을

『昨夜桃花風雨吹
山童帚擬何思
落花顏色赤花也
何必苦庭勤掃之』

라翻譯한것이잇고

『뭇노라 저譯師야
關東風景 어떠트냐
明沙十里에
海棠花 피엿는데
遠浦에 兩兩白鷗는
飛疎雨를 하더라』(十洲佳蹟)

하는것을

『譯子相逢無別語
關東風景也如許
明沙十里海棠花
兩兩白鷗飛疎雨』

라고 申紫霞가翻譯한것이잇고 이外에도 이러케翻譯한것이十餘首나잇는데 이따위를보고엇던이는 時調가틀이어 漢詩이翻譯에다 잘아는이도잇다 그러나 時調에도 漢詩의 翻譯인것의 뭇뭇首잇스니 가령漢詩에

『千尺絲綸直下垂
一波自動萬波隨
夜靜水寒魚不食
滿船空載月明歸』

라하는것을 古時調로

『秋江에 밤이드니
물人결이 자노매라
낙시 들이오니
고기아니 무노매라
無心한 달빗만싯고
빈배를오 오노라』

또 柳子厚의江雪詩에

『千山鳥飛絶
萬徑人蹤滅
孤舟簑笠翁
獨釣寒江雪』

라고翻譯한것이잇고

『뫼에는 새긋고
길에는 갈이업다
외로운배에
고기낙는 저늙은이
낙시의 맛을손이어
눈기픈볼 모르는가』

라翻譯한것이잇고 이밧게아주漢詩의句節에도받들어 時調의形式으로바뀐는것도잇스나 一一히들어말닐것이업다

以上의例를가티 從來의時調와漢詩와는(一)詩人이意思同으로하여 서로偶合한것(二)또는翻案한것(三)翻譯한것도잇다그中翻譯한것을다시들어말하면그巧拙이야 그譯者의솜씨에도잇겟시마는 어느것은原詩보다못한것도잇고 나은것도잇스니「滿庭芳」따위는 原時調가낫고「江雪」따위는 이漢詩가낫다 그러쿠 반듯이漢詩라고 時調보다 나은것도아니오 時調라고 漢詩만못한것도아니다 이건나만 時調와漢詩와가 이럴뿐아니라 其他여러나라의詩와도그러할것이다 그러나워낙他國語로된詩는 自國語로된詩보다알기도어려운이만큼 다보기도어려운것이니 他國語로된詩 그 自國語로翻譯한다야 좀켜럼 그眞境을옮길수업는것이다 비록그意思는옮길수잇다하여도 그法則에야 어찌하라 과연詩의生命은 그意思보다도 그法則에잇다하겟다 만일意思만으로히려진다하면 宗敎書類나哲學書類를보는것이 詩를보는것보다 나을것이다

진실로 時調는時調의法則잇고 漢詩는漢詩의法則이잇스니 時調 漢詩고 그法則이아니면時調도아니오 漢詩도아닐것이다 과연이法則을아는것이야말로詩人의要訣이아닌가한다

## 朝鮮畫壇의 一年(下)

金復鎭

지나간 社會學者의말을빈다면 人間이生活環境에絶對順應은하지안는다고한다 그러나 우리는이러케想念하고잇다 人生이生活環境에서極微한時間이나 獨立할수는업다 假使環境이人間을絶對支配하지는안는다고할지라도 人間이環境의圈外에超然이스지는못하는것、다따라서 環境自體가 人間을支配함이라는것보다 人間自身이環境에서버서나지못하고 도로혀環境의統制下에 蟄居한다고본다 그러면이와가튼論理를압삽이세우고 이것의照明으로 藝術의王國을 觀察한다면 더욱그것의 迷忘、幻惱를 明確히擺提하리라고한다

環境이라는것이 時代의變遷으로하야 刻刻으로 遷化되고 進就됨에는 거의누구나疑義가업슬것이다 原始時代人의環境과 封建時代人의環境과 資本主義時代人의環境과의 서로의다름이얼마나、크냐 環境은固定된것이아니라(歷史的으로思考하여서) 流動하는것이다 이流動하는 에노름한 環境속에 人間은起居한다 藝術家亦是人間인以上 다가티流動하는環境속에잇는것이며 相互間環境의一部의任務를 終始하는것이다 따라서 所謂藝術家도 環境과流動을가티하는 環境의一小部이며 環境과運命을가티하는存在일것이다 高尙한藝術王國의人間의作品도 流動되는環境의一部門일것이며 環境과 그運命을가티 하는것일것이다

都是이리하야될것이다 그러나 藝術王國의人間은 흐르는環境에서 逆流를夢想하고 推追機의方向을 바귀버리고잇다 矛盾된行動 이것이藝術家의所謂第六感의表現이며 美의王國의象徵이며藝術의永遠性이라고絶叫하는것이다 나무색리도서바위틈으로 흘러나리는한줄기물이 丹楓나무숩속으로 숨어지기도하고 山모룽이를아로로이기도하며 언덕에서떠러지瀑布도일우고 자갈위로굴러서가는내도되는것이다

이와가티社會組織이나生活環境도必然的의理路로 變革될에 하필藝術만이 進化法則을거슬理는업다 못은 새로히돌려朝鮮畫壇을觀照하여보자 그러나不幸한일로 以上에論述한바 迷忘한美의王國 往復업는 厭氣가 바로 朝鮮畫壇입에 는내지안을수업다 姊妹藝術인文學社會에잇서서는 眞理의探索피 이론말미암아 猛烈한論爭이한두번아니며다시歷史的으文學自體가社會組織에對하야眞目的이고 忍從的이고 自然─長的임의 (組織이 要求하며所有할바) 反對도意識的이고 有目的이고 前哨的으로 그旗幟를 고칠만하게되야 거지반文學運動의 第一期의終結로볼수잇게되엇다드다도 過言의實을지지안흘만치되엇다고한다

그러면朝鮮畫壇은 엇더타하라 果然複習한바와가티封建時代의遺物에지나지못하야 生活認識이나 生活創造에 이리라는 根據잇는創意가업슬뿐、 터時代的骨董인 文人畫乃至南畫도 虛妄한根城을삼고 自己尊大와 自己陶醉에 迷夢이깁흠뿐이다 다시뭇개의 美術靑年群이 업지안흐나 이역 中毒性幻想과 痴呆性藝術家的素質이濃厚함에야뭐무엇을말하리오 그러니이사람네의1年間業績이다고잇서질리萬無할것이며「한」이업고 反省이업는 이비의集團인畫壇에무슨功果가잇슬가보나

神話도부터 宗敎도부터宮廷으로부터 울고나러온藝術─美術을 새로이한階段만 울고갈勇力이잇는냐 업는냐이를畫壇人에게뭇는다 鳳眼 破鳳眼이나 千字葉 分字葉이라던가 對角線의 交錯點을 唯一한技巧上의다ㅣ分도미난트로알던時代는永遠이살아지고말엇나 사다진 녯能慣을 憧憬하고咏歎하는니보다는 새로운組織이要求하는바의藝術─美術은 새로운組織ㅣ아만所有할바의 藝術─美術을가지고서 目的意識으로의 前哨運動의 藝術의原則的正路가아닌가한다 萬一그러치안타하면 存在하얏다하더라도 無脚의滑稽한形態이니 더구나朝鮮畫壇에잇서서)絶滅을要求할 互倂의苦는 업슬지나 차라리藩海作業의煩弊나마업도록 解體行動ㅣ最大目的으로 다름질이나하여달다는것이다

─(完)─

## 民族、社會運動의 唯心的一考察(二)

### ─反動、傳統、文學의關係─

◇─廉想涉

그러면 反動期에잇는『푸로레타리아』는自己의文化가업슬뿐아니라

積極的 으로는 旣成文化의破壞밧게 엇하지못할지니 且置莫論하고 이時代의文學은 그것이 아모리前期의繼續일지라도 社會的으로 엇더한使命을 가질것인가?……에이르러서 讀者는 萬一一年前에本紙에揭載하얏든階級文學에關한 나의小論을記憶한분 거든 就中『푸로레타리아文學의基調』라는一章을 想起하야주기를바란다 이제 그中一節을摘錄하라한다

『……이『觀念』의 勢力이라는것이 意外에偉大하다는事實을 決코輕視하야서는 아니된다 實로 階級解放運動에잇서서 이『觀念의 破棄』라는것도 모는政策的運動에 못지안흔 重大問題 라하겟고 또한『그理想』의實現前보다도 그後에重要 意義를가질것이오政策의한項目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푸로레타리아文學者가傳統을否認하라고 애만써서는아니될것이나 우리의生活의全局을偉大한力量으로 삿삿치支配하는─卽 우리가只今가지고잇는觀念을根本的으로退治하라고 偉大한計劃을 세워가지고 誠實한努力을 다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다만退治하는것이能事가아니다 새로운生活을自律하고 支持하만하고 새로운社會意識을기를 새사람의새觀念을 박구어가치야할것이다』

이 울퇴번며 『觀念의改造』에過渡期의文學─現在의用語로『푸로』文學의基調와目標가잇다는말이다 우에『스토ㅡ』에對한觀念이 다르다는 例를 들엇 거니와 이例를 거듭拷어말하자면 前代人에게는『피스톨』이란것은 生命財產의守護이요 殺人用器라고觀念되엇지마는 反動 以後의民衆은 人類生活 人間生命의中心要求와背反되는것을 眞情眞心으로認識하게되는것과한가지로 精神物質할것업시 凡百에對한觀念을改造하게하는것이 反動期의文藝가 그運動에供獻할수잇는 最大限度의實行力이라는말이다 그러나이것이 文藝의唯一한存在理由도아니요 또한文藝自體로보아서 重要한要素가된다는 도아니요 또그러한功利的一面이一部人의主張과가티宣傳文을써도조타고하는等 役分曉의意見 對 論據가되는것도아니다 文藝는

文藝다운 價値가잇고서야 비로오 文藝의效果를빌어宣傳의功利도나타나 것이요文藝의獨立性도保持되는것이다그러나 다만反動運動이立脚地에서보면 文藝가直接的의效果는적드라도 本質的인重要한任務를 가진것인고로 利用하라는것이다 웨그러냐하면 反動運動의敎化的根本義는 傳統破棄에잇고 傳統과觀念은 實로그表요 그裏이기때문이다

## 제말、제마음

金志遠

낙즘생도 제말을 쓰거든
들즘생도 제말을 쓰거든
하믈며 사람에게제말이 업슬가보냐

집은 업서지고 세간은 일혓다해도
허는 뭙히고 두손은 못다해도
차라리 [illegible] 언허질망정
엇지 내마음 내말이야 뺏길가보냐

오로지 사람된이어
내마음은 한쪽 가지신이어
제마음 나타내는 제말을


木浦支局發展

海南北平面 九星青年會

海南松旨面 面長 道評議員 朴琫旭

海南北平面漁業組合 文昌周 吳聖五 姜宗玉

海南郡黃山面牛項里 李桓鎔

海南大興寺 住持 白翠雲 監務 甘船月 監事 徐圓潭 法務 金泰煥

002250

莞島郡蘆花面職員一同

莞島郡邑內 莞島郡海苔漁業組合職員一同

珍島郡廳職員一同

珍島郡廳産業團體職員一同

木浦北橋洞 文在喆

木浦北橋洞 金鍾煥

務安郡安佐面 面長 金秀民 書記 林亨珍 書記 姜熙中 書記 李漢中 書記 安採奉 書記 金完基 書記 崔甲龍 書記 全乘都

木浦府榮町 海陸運送 南一運輸株式會社 振替京城七七二九 電話長四二七

木浦竹洞九八 木浦藝妓組合 高玉葉 李桂玉 孫秋月 金玉仙 周蘭玉 李錦香 孔梅玉 童妓一同

莞島郡蘆花面美黃里 姜世遠

木浦幸町 木浦고무總販賣部 主 金晳津 電話五〇八番

木浦櫻町三 靈岩旅館 主 高泰聖 電話八二九

木浦常盤町二丁目 東亞護謨工業株式會社 總販賣部 代表者 金源喜 電話七四七

木浦北橋洞 吳相翊

木浦 金商燮

木浦幸町 海陸物産委託販賣業 朴正杓

木浦壽町二丁目三番地 李來根

務安郡長山面 金永泰

莞島郡邑內 金商爽

務安郡長山面 徐丙翊

珍島郡邑內 許燦

木浦南橋洞 時代旅館 主 李斗心

務安郡長山面 郡星商會主 張德奉

木浦南橋洞二一六 申東一 電話六五三

務安郡長山面職員一同

木浦南橋洞 尹孝炳

間島

間島龍井市 恩眞中學校 校長 裵禮仕

間島龍井市中央學校面側 第一旅館 主任 柳萬春

間島龍井市 光德洋靴店 主任 鄭洙根

間島龍井市 興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尹政熙 專務取締役 姜載厚 電話一三九番

間島龍井市 朝鮮人民會

間島龍井市銀行通 東滿洋行 主任 張志泳 電話一五六番

間島龍井市 富春洋行支店 主任 金河千

間島龍井市 松竹洋行 主任 李松朋 電話六六番

間島龍井市後場里 濟世醫院 院長 鄭昌成

間島龍井市五層台通 回天堂藥房 主任 李鐘錫

間島龍井市濟昌病院 閔山海

間島龍井市 友助旅館 主任 禹臨淵

間島龍井市 東洋館 主任 韓致玉

間島龍井市五層台通 高麗洋服店 主任 馬忠正

間島龍井市 韓成運送部 東西運送部 主任 朱堪

間島龍井市 元井義齒專門 主任 朴元錫

間島龍井市朝鮮民會後側 好生堂義齒所 主任 朱謙吉

間島龍井市 濟昌病院 醫師 金宗鎬

間島龍井市中央學校側 信愛堂醫院 院長 李璟直

間島龍井市後十字街 晃燦洋行 主任 鄭晃爀

間島龍井市 德興泰 電話一〇六番

間島龍井市 金成洋服店 主任 金成集

間島龍井市 李益聖商店

間島龍井市 秦來源商店 電話一四八番

間島龍井市中央禮拜堂 京城自轉車店

間島龍井市中央禮拜堂越便 普興商店 主任 金泳允

間島龍井市五層臺通 成吉商店 主任 金鏞煥

間島龍井市 箕興商店 主任 李大用

間島龍井市 惠山樓 主任 延和元

間島龍井市中央禮拜堂越便 朝鮮寫眞館 主任 朴昌洙

間島龍井村 三星洋行 龍井支店

間島龍井市 富寧商會主任 黃季五

間島龍井市 許相勳

間島龍井市 公益麵粉廠

間島龍井市 中國稅捐分局

間島龍井市 中國官醫分院

間島龍井市 李[illegible]

間島龍井市 無名氏

間島龍井市 信行旅館 主任 黃[illegible]基

間島龍井市 龍井貿易組合

間島龍井市 間島鐵物購買組合 電話二二九番

間島龍井市 平一貿易 主任 崔明均

間島龍井市 鮮一商會

長淵

長淵邑內 濟世醫院 公醫 李忠夏

長淵郡邑內 金時益

長淵邑內 民立醫院 醫師 劉敬翼

長淵邑內 齒術院 入齒師 韓秉周

長淵邑后里 司法代書人 行政代書人 朴相禹

長淵邑內 道評議員 金亨杰

長淵邑內 春山旅館 主 韓雲卿

長淵邑內 黃海自動車部 主 朴鳳淳

黃海道長淵邑內 長淵活版所 主 金時紋 外交員 李元奎

長淵邑內 朴憲植醫院

長淵邑內 長淵旅館 主 趙承浩

長淵邑內 長淵釀酒場 社長 吳龍[illegible] 取締役 李[illegible] 事務員 李[illegible] 事務取締 金[illegible] 取締 崔[illegible]

# 開城事業紹介

## 開城産業界巨星 人蔘大王孫鳳祥氏
### 商業立志傳中의人物

우리 朝鮮안에서 누구를勿論하고開城이라하면곳高麗人蔘을聯想하게되다 그理由로말하면人蔘이란千百種의藥草材中에서卓越하게神力을가진靈草이며또한그뿐만아니라人蔘의産出은오즉開城의田地가아니면不可能한까닭이다 그럼으로高麗人蔘은朝鮮各地方은勿論이오海外에까지널리輸出되는바 언제나우리産業界의唯一한자랑꺼리가되며 또하朝鮮의一大富源이라고하여도

**過言** 이안일것이다 그럼으로現今極度로經濟上으로疲弊한朝鮮에서도 오즉開城만은人蔘으로因하야그影響이적으며金融의圓滑한融通을볼수가잇다그런데人蔘은그耕作에잇서서元來栽培期間이六七年이란長久한歲月을要함으로써 巨額의資本이必要하며資力뿐만아니라耕作에對한不斷의 研究와努力이必要야開城에는人蔘으로因하야成功한사람도잇스며따라失敗를한사람도만흔바 이方面에對한天才的手腕家로서 人蔘大王이란稱號를밧고잇는孫鳳祥氏와 밋氏의經營인高麗蔘業社를紹介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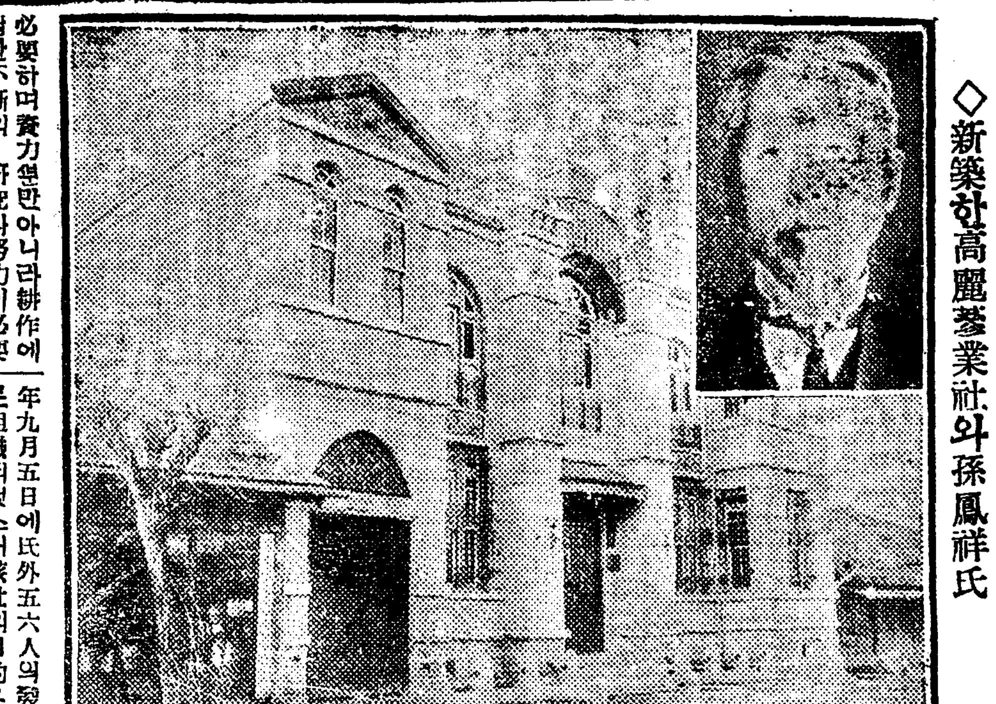
氏는開國四百七十年에開城에서出生한바先天的으로明晳한頭腦와卓越한才質을가즌者이엿다일즉이赤手空拳으로開城의商業界에한번

**投足** 을하자不知中에 世人의信任이날로깁허갈때에 氏는銳敏한頭腦로벌서暗暗裡에將來의人蔘耕作에對한改良의必要를先覺하고 거긔에全力을傾注하며研究하야오다가同志를모아가지고開城蔘業組合을組織하야一般耕作者의便宜와團結一致를圖謀하며白蔘製造의品質向上에研究와努力을앗기지안얏섯다大正七年頃에는合資會社高麗蔘業社를設立하야 大大的으로現代廣告術을利用하야高麗人蔘의海外販路를擴張하매 氏의名聲은廣布되엿다 氏는今年六十七歲의老人이것만氏의精力은 少許의减少를볼수가업스며씩씩한얼골은 그야말로人蔘의精氣를다마시고잇는듯이보인다 그리고氏의넘치고남는

**精力** 과學識은 一個會社의經營에만그치지아니하고 社會事業과貧民救濟에 努力과貢獻이적지아니하다

氏의事業으로는 開城人蔘界에貢獻이만코또한서人蔘精製에定評이잇는高麗蔘業社는大正七年九月五日에氏外五六人의發起로組織되엇스니該社의目的은勿論營利에도잇겟거니와 무엇보다도高麗人蔘을世界에紹介하고高麗人蔘精의 製造方法을改良하야그價値를向上시키자는데잇다고한다 그리고海外販路로는日本을爲始하야中國、臺灣、南洋群島、米國等地이며 通信販賣를主로하고 무엇보다도信用을尊重히한다는데

**近來** 에와서中國方面으로부터 不正한廣蔘이朝鮮內에流入되야 그影響이不少하엿스나그리酷甚치는 아니하엿다하며特히昨年度로부터는 習事務所가狹窄한感이잇서서 巨額을던저 市內本町에 宏壯히新社屋을 新築하고 一層內容을擴張하엿다한다(開城)



◇新築한高麗蔘業社와孫鳳祥氏

## 純朝鮮人經營인 開城電氣會社

**開城** 電氣會社 는大正四年四月에資本金五萬圓으로純全한朝鮮人數氏의發起下에創立되야極히小規模로始作되엿든것이以來十餘個星霜을지난今日에와서는누구나驚歎할만큼非常한發展을보게되엿다 그發展狀况을보건대그동안財界의不振이그처럼極甚하엿슴에도不拘하고두번이나增資를하야現今에는資本金이二十萬圓이되엿스며昨年末의

**電燈** 需用家數는 二千九百餘戶나되고電燈數는十燭換算으로七千六百五十燈이나되며市內各工場에는八十五馬力의電力을供給한다고한다 여긔서吾人이大書特書하고자하는것은開城電氣會社는唯一한朝鮮人의手中에잇다는것이다 이것은아마朝鮮안에서어느地方에서나볼수업는奇特한現象이[illegible]의株主名簿를들[illegible]十餘名中에日本人은僅히小數株主로四五人에不過하다 그리고現在의社長金正浩氏는日本明治大學法科出身으로開城實業界의亘頭요靑年界의中樞人物이니氏는開城電氣會社의

**發起** 當時로부터 唯一한功勞者로至于今該社의發展擴張策에全力을 傾注하야百餘名株主의會社이것만氏는이것을恒常自己單獨經營과가티생각하고諸般經費를節約하야每年期於코一割以上의配當을하게한나 本來該社에서는二臺의發電機를据置하고晝夜를 交替發電해오든中昨年度부터舊機械의發展力이不足함을感하게되야새로히十萬圓을던저獨逸『엠、아、엔』會社로부터三百馬力의『듸ー푸또ー』蒸氣機關을直接輸入하야新築한第二發電所에据置하고萬般設備에不足함이업시擴張하엿다한다 이新機械의据置以後로는市內電燈에도燭光以上의電力이供給됨으로一般市民에게便利하다한다

開城電氣會社의新機械

## 廣告로成功한 崔益模氏
### 松蔘의地位를回復

**高麗** 人蔘은一名松蔘이니距今十餘年前까지는 世人이鍋山蔘이나豊基蔘을愛用하고松蔘이라하면아모價値업는것으로認定하야價格이至賤하되需用치아니하엿섯다 그럼으로每年松蔘産出이不過數千斤의少數도되오히려殘餘가잇서漸次衰退함에이르럿던바開城廣告界의覇王崔益模氏는此를慨歎하야高麗人蔘의大發展을圖할目的으로大正元年에開城人蔘商會를創立하고人蔘耕作의改良에盡力하며 한便으로는多額의費用을不惜하고自來로開城에서볼수업든人蔘廣告를大大的으로한結果果然廣告의

**勢力** 이强大하여今日에는需用者激增으로因하야每年數十萬斤의多大한産出이오히려不足한嘆이잇고 價格도十數倍高騰하엿슬뿐아니라世人이高麗人蔘이라하면靈草로共知케되엿스즉氏는眞實로 開城蔘業界에貢獻者요 有功한先覺者이다 이리하야開城人蔘業界에는未曾有의大活氣를呈하고蔘業界에利益이每年數百萬圓의增加를보게되엿는속잠으로開城一般蔘業界에서는氏의偉大한功勢를이저바릴수업슬것이며廣告術의先覺者로祝賀하지안을수업는바이다

◇崔益模氏

## 將來有望한 開城釀造
### 年産額三千石

**開城** 市西南에잇는龍岫山麓에는昨年度에새로히巨大한煉瓦煙突이聳立하야恒時로黑煙을吐出하는곳이잇스니이는곳開城釀造株式會社이다 元來開城에는市民의多大數가燒酒를愛用하야自家用燒酒製造免許가잇서서各其嗜好대로醸造使用해오든中再昨年부터突然히官廳에서그免許全部를沒收하게되매市民은갑작히困難을感하게되고뒤하서日本酒며中國酒等外來不正品의

**流入** 을밧게되엇슴에여긔에먼저着眼을한開城實業家金永澤氏는同志數氏와發起하야再昨年十一月에資本金十萬圓으로하고各種燒酒製造業을專門으로開城釀造株式會社를組織하엿는데不過一年에그産出高는三千餘石을超過하엿다하며한便으로는燒酒의品質을硏究改良하야松筍酒 松露酒 松燒酒의三種으로製造한다는데 그販路로는開城는勿論하요其他全國各地에도多數한特約販賣店을設置하야着着進展中이라할으로該社釀造業의將來는자못有望하게觀測된다한다

## 朝鮮織組
### 瓦斯緞의聲價 年産額五萬圓

◇朝鮮染織工場一部

**開城** 北本町七五三番地朝鮮染織工場은再昨年春에開城의實業家朴鳳鎭氏의經營으로約一萬圓의資本을가지고極히小規模로始作되여 新木 瓦斯緞 瓦斯木 改良明紬 新学等을主로하야무엇보다도朝鮮人의自作自給을目標삼아僅僅히繼續해오든中昨年度에이르러는數萬圓의資本을增加하야一大擴張을斷行하엿스매現在에는足踏機械가二十餘臺요職工이四十餘名이나되며年産額이四五萬圓에達하엿다한다特히昨年度에는瓦斯緞에만

**全力** 을傾注하야染色이며織造에硏究를加한結果昨年一年間에는每日四十疋式一年間一萬五千餘疋의産出이잇섯다하며瓦斯緞은朝鮮周衣一次에三圓五十錢假量으로玉洋木에比하야價格이低廉할뿐아니라品質이堅實하고潤彩가잇서서이미朝鮮各地에定評이잇는唯一한朝鮮織物이되엿다고한다그리고每年一回式女子職工講習會를實行하야講習生에게는手織機를使用케하며그와가티四十日間을製絲와機業을敎授한後에職工으로採用한다고한다더욱히

**近日** 에와서는瓦斯緞을널리宣傳할必要를感하고各新聞紙上을빌어大大的으로宣傳을하엿다하니將來發展은豫測할수잇다日로衰殘하야가는現今朝鮮의狀態로보아朝鮮染織工場은生産界에多大한貢獻이잇슬것이다(開城)


## 開城

開城南本町 吳景玉寫眞舘

開城南本町 雜貨貿易 愛敬社開城代理店 沈禹植商店

開城南本町五〇〇 開城飮食店組合

開城大和町 金洛鼎

開城東本町一七二 李熙英 電話四六番

朝鮮開城北本町 圖書文具 文化舘 電話一三一番 振替京城四九〇七

開城南本町 東亞印刷所 電話二二九番 振替京城一一三六七番

開城池町五七三 果樹苗木 安山農園 振替京城一三七七八番

開城北本町一八四 啓明印刷所 韓在玉 電話四九番

開城西部通 開城自動車部 朴容夏 電話一四六番

開城大和町二丁目 싱거 シンガー 裁縫會社 主任 李源福 縫結係 朴相 禹相都 池興福

朝鮮開城北本町 高麗蔘房 主 金思鏞 電話二四〇番

開城北本町 高麗醫院 院長 計鏞 電話二一七番

朝鮮開城滿月町 人蔘專門業 開城號 振替京城一三四五番 電話一六四番

開城南山町二五三 松來釀造場 黃來顯 電話五八番

開城滿月町 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

開城高麗町七五 松高牧塲 尹永善

開城南山町 料理屋組合一同

開城大和町 中華料理 松月舘 電話四四番

開城大和町 中華料理 明月樓 電話一四〇番

開城北本町一七三 高麗人蔘永豊社 電話一三三番 振替一〇〇〇五番

開城北本町 神人 崇組合

朝鮮開城北本町 高麗白蔘商會 長電話二〇七番 振替京城五三二番

開城東本町 秦柄執

開城南大門通 松高人蔘商會 電話一四七番 振替京城八五五八番

開城郡松都面北本町三一四番地 朝鮮中華料理 新豊舘 電話九番

開城南大門通 藥種貿易商 普春堂藥房 電話一五六番 振替京城六七五番 私書函開城局四番

朝鮮開城京町 穀物貿易 委托販賣 黃大顯精米所 長電話二八番 振替京城八九三〇番

開城大和町 中華料理 會昇舘 長電話五七番

開城南山町三四六 嚴弘權

朝鮮開城化本町 合資會社 高麗蔘業社 社長 孫鳳祥 營業所 電話長四八番 製造所 電話長二一番 振替口座京城三二九九 電信略號(コサ)

朝鮮開城南本町一五一番地 高麗人蔘都散賣專門 登錄商標 開城人蔘商會 長距離電話二〇八番 振替口座京城四三四六番 電信略號「최」又는「사이」

開城滿月町 藥業 李順福

開城滿月町 美理欽女學校

開城滿月町 開城電氣株式會社 電話五六番

## 永同

永同邑內 貸金業、綢緞布木、倉庫業、魚鹽穀物 株式會社 共榮社 電話四三番

京釜線永同驛前 茂朱自働車部

永同郡永同面會洞里 穀物商 宋在復

京釜線永同驛前 委托販賣 貨物取扱業 永同運輸組 主 鄭學洙 電話二八番

永同邑英朱通 永興自轉車店 朴俊榮

永同邑內 司法代書人 徐光準

永同驛前 永信堂印刷所 朴濟權

永同驛前 司法代書人 金明淵

京釜線永同驛前 穀物商 尹宗賢

永同市內本町通 理髮業 朴來鳳 電話一七番

永同金融組合 理事 小柳英雅

永同驛前 自轉車業 朴瑛錫

永同驛前 司法代書人 朴喜壽

永同邑內 穀物商 孫在厦

永同郡黃金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永同郡黃澗面面事務所 張世喬 裵蘭秀 金元默 金斗煥

永同郡黃澗公立普通學校 西山大四郎

永同驛前 穀物肥料 食鹽 委托業 永一精米所 電話四八番

永同郡上村面事務所 宋錫禹 南基元 宋圭憲 朴濟赫 南重基 朴繼鉉 金侗夏 吳章鎬

永同郡陽山面松湖里 李俊淵

永同郡黃澗金融組合 朴贊模

永同郡永同面稽山里 宋泰憲

永同郡永同面稽山里 金容甲

永同邑內 海東酒類製造場 宋晋憲

永同邑市場通 大安醫院 醫師 安秉三 [illegible]重燦

永同郡 永同面事務所 職員一同

永同郡 龍化面事務所 職員一同

永同郡上村公立普通學校 成基鎬

永同郡陽山面事務所 李命周

永同郡 鶴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永同郡鶴山面鶴山里 穀物商 崔永斗

永同郡楊江面事務所 裵錫用

永同郡龍山面事務所 李侗淳 金瑛燮 鄭大植 閔淨植 金成根 朴喜元 金秉淵 崔在璜 裵貞憙 閔在植

永同郡 梅谷面事務所 職員一同

永同郡黃澗驛前 穀物商 金富根

永同市場 醫生 全悳杓

# 한글 바보사자 (三)

× × × ×

이말을들은 사자는 눈ㅅ살을 잔뜩 씨프리며 무엇이야 이산중에 나외에 또사자왕님이 잇단말이냐 요놈 악클난 거짓말마라

참그래요 아시겟시요 커이들도 귀움에는 이놈은산중에 대왕님한분외에는 다시없는줄로 꼭민고있었지요 그런데저번에 의외에 딴사자왕님은 대왕님보다도 훨신크지요 맛히왕님과소인과 비교하는 모양이어요 그얼굴로말하면 대왕님보다도 몇갑절더무서워요 그소리로 말하드니도 틀림수없이 우렁차요 무엇을모든지 대왕님은 도저히 명함도 못드리겟서요 이런말을들을수록 사자는 더욱더욱 분이나고 심술이나서 어금니를 부드득 갈며 네발을불누고 산천이 울리도록 소리를 질럿읍니다 정말그래 그러면 그사자 있는데로 인도하여라 그놈부터 먼저처치워버리고 너이놈들을 먹어도 늦지아니하겟다 하며 어서가자고 하얏읍니다 사슴은 살그머니 고개를돌리어 혀를낼름내밀고 코웃음을치고 잇서서 걸,잣읍니다 사자는 그뒤를따라 설렁설렁 쫏아갓읍니다 사슴은 수목이욱어진 첩첩한 산중으로 깊이깊이 들어가더니 어느놈은 험한바위언덕에 다달앗습니다 언덕우에는 아람들이 고목이한울을 둘러있고 밑에는 수백길되는 낭떨어지밑에 고요한 결혹같은 물이 나무ㅅ닢사이로 빛우어나리는 일광을받아 검푸른빛이 음참하게 빗우어 있읍니다 사슴은 언덕우에서 밑을나려다보며 커가커것이 사자올시다 커이놈은누서우니 커쪽굴ㅅ속에숨어서 대왕님의 우맹스럽게권투하시서 숙청하시는 광경을 구경이나 하겟읍니다하며 몸 섯읍니다 사자왕님은 으르렁으르렁하며 바위ㅅ등에올나서서 밑에를 본즉 어둠침침하야 잘보이지는 아니하나 커쪽굴ㅅ속같은 속에 한마리의 큰사자가 눈을부릅뜨고 이쪽을올려노코있읍니다 그것을본사자는 노기가 충천하야 한소리어웅!하고 부르짓은즉 커쪽사자도지지아니하고 역시어웅!하고올었읍니다 이쪽사자가 갈기털을 일으키어 부르짓면즉 커쪽사자도 갈기를떨칩니다 이쪽사자가 아가리를벌이고 어금니를 부드득간즉 커쪽에서도 지지아니하고 역시이를갈니다 사자는 더욱더욱 골이나서 우뢰같은소리를 기운껏지르며 있는몸을모아뺏으며 뛰어나리려한즉 커쪽에서도 조금도 무서워아니하고 달려들어 올더고합니다 야이놈 하고 사자는한숨에 꿩쳐뛰어나려갓읍니다 풍덩하고 큰물ㅅ소리가나며 동ㅅ에 적수로있던사자는 간곳이없읍니다 사자는 정신없이 물ㅅ속에서나오려고 네발을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을 첫시마는 점점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물ㅅ고기의 밥이되고말앗읍니다 양주사슴은 바위우에서 그광경을 나려다보며 좋아하야 이같이부르짓엇읍니다

죽는다 죽는다 사자놈이죽는다 네아모리용맹난놈 뛰어나올수 있겟느냐 약한우리결에들이 강한밥돌 모진이에 네밥되고말엇도다 죄받는다 죄받는다 사자놈이죄받는니 네아모리 강포한놈 어찌하리오 (끝)

# 童話 달나라의사자 【二】

李定鎬

넷날 엇던 숲(森)속에 어미 양(羊)과 새끼양두머리가 살엇습니다

깁흔숲속에도 처음겨울이 지나고 따뜻한봄이되면 사면에서 엿던눈과 거름이녹고 식는고밭력던 나무가지에 새파란싹이나며 개나리와 진달레쏫이휘작피여 각색나비가 춤을추고일만새들이 노래를하엿습니다 그리고 산골작이 시내ㅅ물은 측느려진 나무가지를 독독차면서 어데로인지 졸졸 흘러갓습니다

그럴때면 어미양은 새끼양을 다리고 북쪽으로 조고만고개하나를넘어서 한업시 넓은들판으로 쏫숙쏫숙 나오는파ㅡ란풀닙을 뜨더먹으러나가는것입니다

올해도 발서 치운겨울이지나고 따뜻한새봄이되야 왼겨울동안눈에덥히고 얼음에 덥힌캄캄한 구멍속에서 갑갑하게지내든 두양이 처음으로 구멍밧글나오니 하늘에나오른듯이 상쾌해서 깃븐마음으로 풀을뜨더먹으려 고개쪽을향하야 타박타박걸어가고잇섯습니다

그쌔에 이모자가 걸어가는마즌편고개밋 바위틈에서 별안간 큰이리(狼)한머리가툭튀여나오더니

『오 조흔곳에서잘두맛낫다오래동안어름과눈속에파뭇처가서배가곱흐고 눈이움푹들어고몸이 파리할대로파리해커서 인케는 이대로죽어버리는게다하고 혼자 탄식을하고잇섯더니 다행히 너의모자(母子)를맛낫고나 자아 네가다리고가는 그새기는 먼저아츰밥으로 잡어먹을터이니 이리내라』

하면서 새기양에게로 달려들엇습니다 어미양은 너무도무섭고 놀내여서 급히 새기양을케몸으로가리우며

『그게무슨발숭입닛가 배가곱흐고 눈이움푹들엇가고 몸이 파리해서 새만남은것은 당신이나 우리나 다맛찬가지가아니겟습닛가 만는 다른것이조곰이라도 잇다면 우리는당신보다 털이길어서 파리한몸둥이가 보히지 안는것뿐이겟지요 웁지금과가티쌔만앙상한우리들잡어잡순들당신의니나압흘쌘이지 맛이잇겟습닛가 배가 부르겟습닛가 그러니우리가 지금부터 이고개넘어들판에가서 풀이나 실컨뜨더먹고 밥머로 뛰고 놀게내버려두엇다가 가을이되야 살이포동포동 쇠게 되거던 잡어잡숫는게 엇덧습닛가』

하고벌벌떨면서 말햇습니다 이말을듯고가만히 생각해 보닛가 어미양의말노그럴듯한지라

『올치그것참잘생각햇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노아줄터이니 고개넘어가서 풀을 뜨더먹고 잇다가 가을이되야다시 이곳으로 도라올쌔에 나는여긔서 기다리고 잇다가 잡어먹을터이다』

하고이리는 어대로인지 가버렷습니다

이리의 가는것을보고 그케야 어미양은한숨을 휘하고 내쉬면서 가을이되려면 아즉도오랜날자가 남어잇스닛가 그안에무슨 조화가생겨서 어린자식을 죽이지안코 살닐수가 잇겟지!생각하고 어미양은마음을 턱노코 새기양을다리고 고개를 넘어갓습니다

◇ ◇

봄에는 쏫이만발하고 녀름에는 풀이누성하더니 어느듯가을이되야 나무닙이하나식둘식 떠러지기 시작하엿습니다

모든는새기양은 봄과 녀름동안에풀을 실컨뜨더먹고 밤낫도뛰놀고 잇섯든고로 살이포동포동 쪗습니다 그러나 어미양은

『아아 발서 가을이되엿구나』

생각하닛가 어린자식의 목이 거정이되여서 견댈수 업섯습니다

『가을되기를 조흡겟손꼽아기다리든 이리는 반드시우리의 도라오기를 기다리고 잇슬것은 분명한일이고 이케는날도 차차 치워질터이니 집으로도라가기는 하여야하겟고 지금에 조흔꾀를생각해 두지안어서는 안되겟는데……』

하고어미양은 날마다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기에 해를보냇습니다 그러노라니자연 몸이파리해지고 얼굴에는 근심빗이떠날사이가업섯습니다 이것을 그들판에서 가티노든동모중에서 독기가눈치를채고 하로는 양에게

『여보양서방 당신은요즈음도 모지 놀지도안코 늘근심만하고잇는모양이니 대데 무슨걱정이 잇기에 그런단말이요』

하고 전답가 물엇습니다

어미양은 첫번에는 공연히말을 하얏다가정다운 동모에게 까지 괴로움을 씨치면엇절가하야 말을노모지 안하려고하엿스나 독기가 하도정성스럽게 뭇는고로 엇커는수가업시 이리와 약속한 말을죄다하고

『인케 도라올때는 점점 갓가워오는데 아즉도 조흔꾀를생각지못햇스니 엇더케 걱정이안되겟소』

하닛가 독기는

『아니그래 아모리이란놈이 조임이만코 우둔보다는 큰음생이지만 그리케 언지의놈이야뭘수가 잇단말이요 가만히 잇수 아모려기도 그와진놈쯤이야 한꾀가업겟소』

하고 독기는 길다란귀를쫑긋쫑긋거리며 한참이나 무엇을생각하는듯하더니 얼마후에

『렴려마시요 조흔수가잇스니 ……』

하고 어미양의귀에다 입을대고 무엇인지 적은소리로 소곤소곤하엿습니다 그러닛가 어미양은 근심하든 얼굴에 갑자이 우슴을띄우면서

『그러케합시다 그러케해요』

하고 조와하엿습니다 그리고나서는어린새기를 다리고 날마다 풀숩헤숨어서 무엇인지 만늘고 잇섯습니다 (續)

# 當選 벌당한톡기

二等 朴熙陽

톡기 이야기

톡기는 엇지하야 두귀가삣죽나왓스며 인중이 쐬어커언청이가티 뵈입닛가 여긔에는자미스런 이약이가 잇습니다

넷날이나 오늘이나 한번죽으면 다시살지못한다는것을 인간들이 대단 슬프게생각한모양입니다

보름동안에 이세상을 비최어주는달님이인간들이죽음을슬퍼하는것을 대단 동정하엿습니다 그리하야 어떤날 자긔가친히 다리고잇던 톡기를 명하야

『내가 동에서나와 서으로 지지마는 그이튼날 다시동에서나오는것과가티너의인생들도 죽케부터는한번죽드래도다시살어나게될터이니 걱정을말라』하는 말을 인간에게 던하라 하셧습니다

그당시에 톡기는 쥐가쌀며서 그러함이엇든지 달님의하는말을 잘 못알어듯고 세상에내려와서는

『달이동에서나서 서에지는것과가티 사람도 한번죽어지면고만입니다』하고그릇던하엿습니다

이말을 들은인간들은 더욱슬퍼탁심하게되엇습니다

이러케 말을 전한톡기는다시 달님께 돌아가서 인간이슬퍼하던광경을 일일히 고하엿습니다

이말을 들은달님은 크게성을내어 활에살을 먹여톡기를쏘앗습니다 그쌀은 톡기의인중을 마치엇습니다 그리고『그러케잘 듯지못하는귀는 두어서 무엇을하늬?』하고두귀를 잡어 쌕앗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내려가 고생을 해보라하고 내여쏫찻다합니다

이러한벌을 바든뒤로부터 톡기는 인중이 쌔커서언청이가되엇스며 두귀는 쎄죽나오게되엿다합니다 그리고 화살맛고귀쌕힐때에 엇더케 놀래엇던지그때부터 경겁증이생기어 잠시도 진중하게잇지못하고 이리로 커리로 팔작팔작 뛰어다니게되엇다합니다

# 멍텅구리 사회사업 (14) 첫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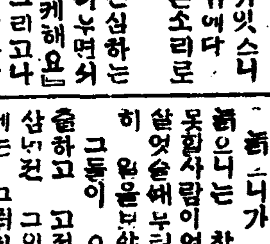
(一) 우연히 뭇는 옥매의말에
(二) 기둘든듯이 나오는대답
(三) 첫사업으로 기생조합총고문
(四) 일업소 무효예요 옥매의밥상

# 斷崖

金海剛

여긔는 끈허진 낭떠러지
자칫하야 한발을 잘못드되면
천길이나 만길이나
험한 구렁으로 써러지는
끈허진 낭떠러지
위태한 발탕이
× ×
커 미테 구비치는 물결
오―원혼들은 구슬히우는고나
모진 채쭉에 우두두몰려
헤매이는 발자최
얼마나 써러첫는가?
× ×
지금것은 이자리
날카운 바위뭇
오―커들의 쌔여진
발등에서 흘러나와
무든피는 아직도 붉고나!
가시지 안햇고나!
바람은 얼마나 불엇스며
비는 얼마나 뿌렷던가?
× ×
오―이커틔에 헤매이는
무리들이여!
뒤에서는 아우성소리가
더욱 놉하지지안는가?
뒤로 도리킬거나?
압흐로 내드들거나?
엇지하련다?
모라닷는 敗北者!
끈허진 낭떠러지!
× ×
눈물을 뿌리며
굴렁으로 써러지려느냐?
이것은 쏫기는 무리의
마지막 발탕이―
도리키라 쌋홈터로
발길을 도리키라
하나 되여 내칠는곳에
삶의빛이 빗나리니
× ×
가슴을 쌁아
이斷崖를 부시라
그리하야 걱구러커도
쌋홈터로 나가 걱구러지라
걱구러지고 또걱구러지는
그곳상――
오―거긔에 다시
살 피ㅅ줄기는
이러스는것이다
―(눈보라치는커녁에)―

# 키일흔帆船 【五】



李益相 作 李靑田 畵

창호의집에는 둘러렴 식구 세사람밧게 아무도업섯다 창호남매이외에 밥도지어주고 바누질도해주는 침모겸어멈이 『하니가 한사람잇섯다 이할머니는 창호의집에는 업시 못할사람이엇다 그의남편이 살엇슬때부터 그집에서 충실히 일을보아주든이엇다

그들이 오날에는 이러케단출하고 꼬리하게 지내지마는 삼년전 그의모친이 살엇슬쌔에는 그러치안햇다 그의집은 이고을에서 일홈나는부자는아니엇스나 먹고입는데에는 아무걱정이업섯다 엇잿든 집안에다가 반식구이상인을 부치고도 넉넉히 살어갈만한뎡도엿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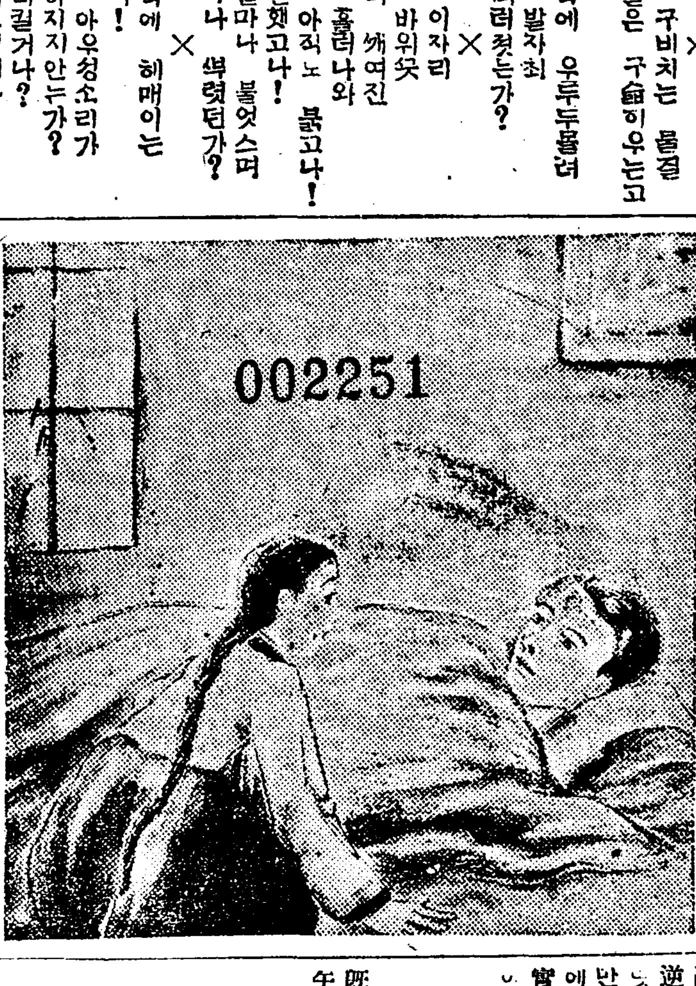
그리하야 창호남매도 이세상의 생활고(生活苦)라는것이 잇는지업는지 그것을 몰으고 자라낫다

그부친은 그들이 철도나기전에 이세상을떠낫섯다 유산이란것도 그대지 넉넉지 못하얏다 겨우 일년동안을계량할만한 면답백여두락이 남엇슬쑨이엇섯다 그어머니는 철모르는 어린자식남매를 다리고 과부살림으로 근근철약한까닭에 그가 삼년컨봄 이세상을 써날쌔에는 집안형세가 거의 배나늘엇섯다

그쌔에 창호는 그디방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십구세된소년이엇고 인순이는 보통학교를 막마친 십오세된소녀이엇다 그어머니가 별안간죽게된것은 어린그들에게는 청텬벽력이엇다 그런데다가 미들속한친척도업섯다 그리하야 그어머니가 죽을쌔에도 자식남매의 장래를걱정하야 마음노코 이세상을떠나지못하엿다 림종시의 유언을들어도 그어머니의 불안심되는것을 알수가잇섯다 느진봄밤이 거의밝엇슬쌔에 병상에누엇든 어머니는 봄날밤 잠이깁게든 창호와인순을 불러다가『너의들은 돈앗가운줄을 알어야된다 이세상에살라면 돈이잇서야한다 지금짜지 너의들은 세상형편을모르고 자라낫스니까 먹으면밥이요 입으면의복인줄알지만 먹고살기커럼 어려운일이또어듸잇겟니 지금우리집에 쌀마직이나잇스니 장래난도 그것을 결약히만하면 남에게 창피한일을 아니당하고라도시 벌수잇슬것이다 부대 어미의말을 허수히알시말고 조심해야된다』하고 일렀것다 이러케 말하는 어머니의 스쳐한얼굴에도 눈물이흘럿고 이말을듯고잇던 창호남매의눈에도 눈물이괴엇섯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긔와 오래동안 고생을가리하며 살림을 맷허오던 할머니를 불러 『나죽은뒤라도 내생전이나 다름업시 커아이들의뒤를 종거두어주게』 하엿섯다 이런유언비슷한 부탁이 잇슨지 이틀뒤에 그어머니는 그대로 세상 써나버렷것다

어머니 죽은뒤로부터 오날짜지 온집안이 큰실패업시지내여왓다 창호는그유산을업셀셔통도되엇고 또한 그재산을 더느릴능력도업섯다 세상에 흔히잇는 재리(財理)에눈뜬젊은이가트면 그 약간되는 유산으로 미천을삼아 더늘궁리라도하엿겟지마는 그는문학이란것을숭상하게된 까닭에 인도(人道)니 정의(正義)니 진리(眞理)니하는 관념으로자신의내뎍생활(內的生活)의 충실을 도모하는터이다 엇더한쌔에는 조고마한 유산을밋고 가만이안저서 먹고지나는것이 량심에 붓그러운생각이 나기도하엿다

그리하야 모든것을 털털러바리고 홀몸으로 방랑의 길이라도 써나고십헛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써리키는것은 어린누의동생이엇다



## 新刊紹介

◇朝鮮農民 (一週年紀念號) 回顧一年 慶南의小作慣行 平北農家의經濟現狀 社會의內包와外延 農村과衛生 蠶繭의成功法 世界의農村及農民生活其他― 發行所京城慶雲洞八八 朝鮮農民社 振替京城一四八三番 定價十五錢

◇朝鮮文壇(新年號)文藝思想과社會思想(裴鎭) 文壇否定과文學擁護(白岳山人) 文壇沈滯의原因과그對策에對한文壇諸氏의意見 其他隨筆感想과創作欄에當春(浪雲) 紅焰(躍海) 女性(永八) 岐路(獨鵑) 해뜨는地平線(遐虛) 發行所 京城安國洞一〇五番地 朝鮮文壇社 振替京城五七八四番 定價三十錢

◇新民(新年號) 反省과決心 人間性의沒落 致薬업는經濟生活 生活改善方策에對한諸氏의意見 朝鮮文壇의現狀과將來(廉想涉) 出發(梁白華) 反動(方仁根) 其他探偵小說 詩 懸賞募集等 發行所 京城府茶屋町九十八番 新民社 振替京城一二三五七番 定價七十錢

◇天氣豫報 曇後雪模樣
◇溫度 四日 正午 三九、六
◇比較 三日 最低 三九、九
◇日出前七時四七 晝間九時四〇
◇日入后五時二七 夜間一四時二〇

# 朝米

## 仁川期米 (四日) 前場反高

客臘三十圓二十八錢에比較的小強의勢로 大納會를告하엿든當市場은今四日前場에 入하야阪地三十五圓七十五錢인大十二丁上鞘의初發會를報하고 三十一圓〇五錢 인九十八丁上鞘 로堅調를始하엿다 阪地는四節六十九錢 로五十二錢에止를하얏스나不拘하고稍漸高調를示하야結局二十五錢의最高價로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二十丁이며阪仁의鞘는五百二十七丁이더라

## 新年發會 中限은二十一丁低 先限九十八丁上鞘

客臘中에는諸物價의低落又는止米實勢의軟弱과共히續續瓦落을告하다가結局掉尾一振의小高로三十圓三十八錢에最後終幕을告하야越年後買人氣는助長하엿스나其間正米의事情이小軟함을따러中限은二十一丁反落으로先限은九十八丁上鞘인新年初發會價를示함에至하엿든阪地는發會後反高로稍漸低移하엿스나當市場은逆順의步調로發會後反高를示하얏는바此는新春劈頭의初發會인만큼買氣가旺盛하나一時的現象에지나지못할뿐하고今後局勢는實米의低落과相俟하야反히軟態의傾向가잇슬가한다

## 和氣靄靄中 新春發會式

旣報한바와如히新甫發會는本日午前十時부터始作되엇다若松社

# 京取市場 (四日) 初立會變態商情

京取 五〇低 仁取 一〇低 大新 一六〇低
鐘新 一五〇低 仁新 五〇低

## 大喪中人氣低迷로 近來初有의下廻狀況

客年大納會는掉尾의一振商情으로諸株가一齊爆發, 勢로高納會를告한後休會中비록大喪中이나氣配가高하야新甫活躍을企待하든中及其初立會에至하야는吊慰的市勢로變하며人氣一齊軟化함에至하얏는대東新은비롯하야大阪大新七十錢低落인九十九圓三十錢寄付後漸軟의霜에當所亦一齊히軟化하며近來初有인下廻狀情으로大新은九十八圓九十錢에寄後一高一低하야九圓十錢을高價로九十八圓七十錢의低價가有한後八十錢에大引되고鐘新은百四十三圓三十錢寄後此를高價로奔押되여百三十二圓五十錢의最低로大引하고京取는二十八圓十錢에寄後五十錢의高價로昇進하얏다가二十錢으로反落하야大引하고仁取는八十一圓五十錢寄付一本임이오仁新은三十一圓四十錢寄步二本임이엇는바如此히納會價보다下廻하는狀態를呈하얏슴은四五年間에드물게보든바이라더라

## 諸株反落 吊意的市勢

今年新甫初立會價는諸株가一齊히反落된近來初有의不味商情이엇는바客年大納會時에俄然人氣硬化하야大爆發裡에活躍商情을帶하며高納會를告하얏든바新年劈頭에는氣配가매우强하얏슴에도不拘하고發會時에際하야자못强熟하든春高人氣도그存在를疑心할만큼軟調漲溢한中諸株가一齊히反落下廻하는狀態를呈하야 大新은一圓五十錢低 押인九十八圓九十錢으로初付하야九圓十錢이最高로九圓七十錢의低價가有하고八十錢大引인意外의市況을呈하얏고 鐘新은七十錢低인百四十三圓三十錢 初寄後此를最高로一圓五十錢의低落인百四十二圓五十錢最低價로大引하얏스며京取는五十錢低인 二十八圓十錢에 寄後 五十錢의一進이有하얏스나及其二十錢으로反落大引되고仁取는十錢低인 八十一圓 五十錢이엇스며 仁新은 五十錢低인 三十一圓 四十錢 이엿스니如此히諸株가一般企待와背馳하야低落下廻된原因은勿論大勢의식히는바아니나方今大喪中임으로財界其他諸事了되기前는到底히期間이完情이躊躇裡에推移될것이라는觀念에아직은積極的方策이나或은春高人氣로驅動될수업다는意識下에如此한變態的商情을帶함인것깃다더라

## 大勢는果如何 優良株의買時?

新甫初發會는意外로低迷裡에發會를보게되엇는데이케株界大勢를推察하건데長久間沈滯不已하든財界가今年부터는轉換期로入하리라는觀念이濃厚할뿐아니라厥眠이依하든바政府低利政策은一般의決心을確固히할뿐아니라諸事業의發興、投資的決心、新

◇賣買等級 長의股會議가잇슨後大正十五年中各店賣買成績에依한四等外지의表彰이잇섯스며그다음에는取引員組合柔野網委員長의式辭가이슨後各店店員의十年勤續又는五年勤續에對한褒賞이잇섯는데賣買等級과勤續店員은左記와如하다

◇一 ㉧新田讓氏▲二等㉦濱淵紋七▲三等㊅小林藤右衛門▲四等㊃今村賢次郞

◇勤續店員 ▲十年勤續㊁藤島淳㊀土肥千太郞○㊁老原金三郞▲五年勤續㊅洪榮福○㊂七熙○力武國吉

## 前場

| 當限 | 中限 | 先限 |
|---|---|---|
| 一節 三九、六〇 | 三四、〇四 | 三〇、一四 |
| 二節 三九、三〇 | 三四、〇〇 | 三〇、一六 |
| 三節 — | 三四、〇一 | 三〇、一〇 |
| 四節 — | 三四、〇五 | 三〇、一〇 |
| 五節 三九、四九 | 三〇、〇四 | 三〇、一二 |
| 六節 — | 三〇、一五 | 三〇、一二 |
| 七節 — | 三四、九 | 三〇、二五 |

## 大阪期米

| 寄 | 當限 | 中限 | 先限 |
|---|---|---|---|
| | 三三、四〇 | 三三、四五 | 三五、三二 |
| 一節 | 三三、三五 | 三三、六九 | 三五、三九 |
| 二節 | 三三、三五 | 三三、五五 | 三五、四五 |
| 三節 | 三三、二二 | 三三、二七 | 三五、三三 |

| 止 | 當限 | 中限 | 先限 |
|---|---|---|---|
| 四節 | 三三、三五 | [illegible] | 三五、四八 |
| 五節 | 三三、三五 | [illegible] | 三五、四五 |
| 六節 | [illegible] | [illegible] | 三五、三二 |

## 各地期米

| | 前場 | 後場 |
|---|---|---|
| 東京 | 三三、五〇 三三、五七 | — |
| 兵庫 | 三三、八一 三三、五〇 | — |
| 下關 | 三三、九〇 三三、七〇 | — |
| 桑名 | 三三、四八 三三、三三 | — |

大阪氣配 三十五圓五十二錢

## 仁川正米市勢

| | |
|---|---|
| ㊂㊀㊆玄米三等 | 二九、八〇 |
| 同 四等 | 二九、三五 |
| 無檢査米 | 二六、五〇 |
| 一等精白米 | 三三、五〇 |
| 在來正租 | 八四 |
| 改良正租 | 八六 |

## 株式休中氣配

東新 百七十六圓八十錢
久原 五十九圓九十錢
鐘新 百四十二圓八十錢
大新 九十八圓五十錢

## 京取短期取引

| 株名 | 前寄 | 大引 | 後寄 | 大引 |
|---|---|---|---|---|
| 京取 | 二八、一〇 | 二八、二〇 | — | — |
| 鐘新 | 一四三、三〇 | 一四三、三〇 | — | — |
| 大新 | 九九、〇〇 | 九八、八〇 | — | — |
| 仁取 | 八一、五〇 | — | — | — |
| 仁新 | 三一、四〇 | — | — | — |

## 前場諸株步調

▲京取 二八、一〇―三〇―二〇
▲鐘新 一四三、三〇―三〇―二〇―九
▲大新 九九、〇〇―八〇―九〇―七〇―一〇―一〇
▲仁取 八一、五〇―
▲仁新 三一、四〇―四〇―

## 大阪短期株式

| 株名 | 前寄 | 大引 | 後寄 | 大引 |
|---|---|---|---|---|
| 大新 | 九九、五〇 | 九九、六〇 | — | — |
| 鐘新 | 一四四、〇〇 | 一四三、六〇 | — | — |
| 久原 | 六〇、三〇 | 五九、八〇 | — | — |
| 東新 | 一七六、四〇 | 一七六、五〇 | — | — |

##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九九、五〇―四〇―六〇―五〇
▲前場鐘新 一四四、〇〇―五〇―六〇―
▲前場久原 六〇、三〇―三〇―六〇〇〇―
▲前場東新 一七六、四〇―一〇―八〇―
一九五、一〇―

## 取組代引算定日步

| 株名 | 取組 | 代引 | 算定 | 日步 |
|---|---|---|---|---|
| 京取 | 一五、七一 | 二五、四一 | 二六 | 一四 |
| 鐘新 | 二二、八〇 | 一五、七〇 | 一八〇 | 一四 |
| 大新 | 七七、九〇 | 二八、九〇 | 九、八〇 | 一八 |
| 仁取 | 六八、一〇 | (不)二〇 | 八〇逆 | 一四 |
| 仁新 | 二〇、〇〇 | 四三 | 二〇 | 一四 |
| 安取 | 四〇 | 二〇 | 八 | 八 |
| 朝紡 | 一五四 | 一四〇 | 一二〇 | 二四 |
| 殖新 | 一〇 | 一二〇 | 二〇 | 二〇 |
| 久原 | 七七 | 七〇 | 六〇 | 七〇 |

以上二日分日步

## 出來高

▲長期 一三七
▲累計 一四七
▲短期 六六七九
累計 〇〇〇

## 大阪長期株式

| 株名 | 前寄 | 大引 | 後寄 | 大引 |
|---|---|---|---|---|
| 鐘紡 | 一五二、五〇 | 一五二、九〇 | — | — |
| 同新 | 一四〇、九〇 | 一四〇、五〇 | — | — |
| 大株 | 一二二、五〇 | 一二二、三〇 | — | — |
| 同新 | 一〇二、三〇 | 一〇〇、五〇 | — | — |
| 日糖 | 一二一、九〇 | 一二一、〇〇 | — | — |
| 久原 | 六〇、五〇 | 六〇、三〇 | — | — |
| 同新 | 二一、九〇 | 二一、七〇 | — | — |
| 絹絲 | 三二、九〇 | 三二、七〇 | — | — |
| 同新 | 八、〇〇 | 八、〇〇 | — | — |

## 東京現株

| | | | |
|---|---|---|---|
| 東株 | 一六三、四〇 | 同新 | 一六六、四〇 |
| 鮮銀 | 六六、二〇 | 同新 | 五一、〇〇 |
| 殖銀 | 五一、〇〇 | 同新 | 五一、〇〇 |
| 滿鐵 | 一〇五、〇〇 | 同新 | 六六、〇〇 |
| 東拓 | 一〇、〇〇 | 同新 | 五一、〇〇 |
| 滿毛 | 一〇、〇〇 | 朝紡 | — |
| 富士紡 | 六六、四〇 | 日石 | 六六、四〇 |
| 甲五利 | — | 速取 | 三、四〇 |

## 朝鮮銀行券

發行高 一一〇、六六六 一五三、〇〇〇
正貨準備高 七〇、一五五 一〇一、〇〇〇

## 主要株取組

▲京取賣 洪敗二一〇 崎六五〇古川 九〇新田二二一〇金秀二八〇外三店▲買 金龍二〇〇
▲大新賣 方正崎一〇四〇田友一〇四〇新田二六五〇金秀四五〇外二六〇白樂一八〇外三店
▲鐘新賣 方大林二五〇洪敗一二〇金龍一一〇古川一三〇田友一〇五〇京證四八〇松山二〇
○田道八五〇白樂一六〇外一店
▲鐘新賣 方定岡一五〇外小口四店▲買 田友一七〇京證五六〇松山一六〇田道一二〇外小口五店

## 海外經濟

倫敦銀塊 二五片
英米爲替 四弗八五仙八分ノ三
印棉 十四錢
米棉 一五五〇弗 五十錢
スモル株 四八五弗
ヤナポン株 五四〇
紐育銀塊 四九弗
紐米爲替

## 綿絲

## 大阪三品

| | 前寄 | 前止 | 後付 | 後止 |
|---|---|---|---|---|
| 一月限 | 一八五、三〇 | 一八五、五〇 | | |
| 二月限 | 一八五、九〇 | 一八六、〇〇 | | |
| 三限 | 一八六、八〇 | 一八七、〇〇 | | |
| 四限 | 一八八、三〇 | 一八八、四〇 | | |
| 五限 | 一八九、九〇 | 一九〇、〇〇 | | |
| 六限 | 一九〇、三〇 | 一九〇、七〇 | | |
| 七限 | 一九一、三〇 | 一九一、四〇 | | |

## 延取引

### 群山實買高

二一六四石

| | | | |
|---|---|---|---|
| ㊉上三等 | 三〇、〇〇 | 四等 | 二七、五〇 |
| 口チ三等 | | 四等 | |
| 一月中 | 一月末 | 二月中 | 二月末 |
| 一回 三〇、五〇 | 三〇、二〇 | 三〇、一〇 | 三〇、〇〇 |
| 二回 三〇、四〇 | 三〇、五〇 | 三〇、五〇 | 三〇、一〇 |
| 三回 三〇、五〇 | 三〇、一〇 | 三〇、二〇 | 三〇、一〇 |
| 四回 三〇、四〇 | 三〇、二〇 | 三〇、三〇 | 三〇、一〇 |

### 釜山實買高

一千一百石

| | | | |
|---|---|---|---|
| 殷良 | 三一、五〇 | 神力 | 三〇、〇〇 |
| 一月中 | 一月末 | 二月中 | 二月末 |
| 五回 三〇、四〇 | | 三〇、一〇 | 三〇、二〇 |
| 六回 | | 三〇、一〇 | 三〇、二〇 |
| 七回 | | 三〇、一〇 | 三〇、一〇 |
| 八回 | | | |

### 大邱實買高

一萬一百石

| | | | |
|---|---|---|---|
| 殷良 | 三〇、四〇 | 神力 | 二九、八〇 |
| 一月中 | 一月末 | 二月中 | 二月末 |
| 一回 | [illegible] | 三〇、四〇 | 三〇、三〇 |
| 二回 三〇、四〇 | 三〇、六〇 | 三〇、一〇 | 三〇、〇〇 |

社告

本支局에서左와如히記者를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시압
玉溪駐在記者 全順甲
朝鮮日報江陵支局 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記者를任命하엿사오니各位는照亮하시압
淵川駐在記者 金在俊
文山駐在記者 金成鎭
朝鮮日報汗浦支局 白

本支局員李在必氏는事情에依하야記者의責任을解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諒存하시압
朝鮮日報裡里支局 白

本支局에서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明川駐在記者 鄭來勛
明川駐在記者 黃完宅
明川阿間面駐在記者 金良俊
朝鮮日報吉州支局 白

本支局記者洪億吉氏는事情에依하야辭免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朝鮮日報群山支局 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朝鮮日報市邊里支局 白

本支局顧問李鍾寶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任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顧問 孫鳳周
朝鮮日報市邊里支局 白

本支局總務兼記者金東漢君은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諒하시압
總務 姜濟殷
德源駐在記者 金源麟
朝鮮日報文川支局 白

# 迎日

慶北滄洲面九龍浦 面協議員 徐錫祚

九龍浦港 姜相奉

慶北九龍浦港 崔彥祚

九龍浦滄洲公立普通學校 李裕錫 李祚遠

迎日郡滄洲面三政里 有志 金載河

迎日郡滄洲面三政里 有志 林南淑

慶北迎日郡東海面都邱 郵便所所長 金致勳

慶北迎日郡 東海面職員一同

慶北迎日郡東海面都邱洞 名望家 片泰仲

慶北迎日郡迎日面宅前洞 有志 金基正

慶北迎日郡兄山面環湖洞 青年有志 崔壽殷

慶北迎日郡兄山面環湖洞 有志 朴光休

慶北迎日郡兄山面環湖洞 區長 朴漢九

迎日郡兄山面環湖漁寮 主 崔政鳳 李驥雨

慶北迎日郡兄山面汝南洞 有志 金辰珌

慶北迎日郡兄山面竹島 有志 李壽三

慶北迎日郡兄山面竹島洞 有志 金龍石

迎日郡兄山面長 金昌錫

慶北慶州郡慶州面皇南里 金相恒

慶北慶州郡慶州面皇南里 金相益

慶州郡慶州面校里 崔泳祿

曲江面興安洞 面協議員 金相白

迎日金融組合興海出張所 鄭臣煥 裵南九

迎日郡興海面彌城洞 李萬圭

迎日郡興海 李元雨

興海邑 布木商 韓元仲

迎日郡興海邑 有志 崔基榮

迎日郡神光面馬北洞 金鏞澤

迎日郡杞溪市場通 司法代書人 鄭義欣 右事務員 朴龍建

迎日郡杞溪面仁庇洞 面協議員 崔兌鎭

杞溪青年會 李殷雨

慶北迎日郡杞溪面文城 有志青年 洪淳樂

慶北迎日郡杞溪面縣內洞 有志 李英雨

慶北迎日郡杞溪面縣內洞 蔘昌公賣所 主任 金相漢

慶北慶州郡江東面良洞 有志 李學久

慶北迎日郡烏川面文德洞 區長 金仁泳

松羅面松羅里 許枋

淸河面鳴安里 有志 申基善

盈德郡烏保面大夫洞 有志 潘寧穰

慶州郡陽北面典村里 有志 崔子仲

慶州郡陽北面羅亭里 有志 金滿河

慶州郡甘浦港 甘浦勞働夜學校職員一同

慶州陽北面甘浦港 東興學院 南秉鎭

慶北迎日郡良浦漁業組合 理事 李容奎

長鬐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迎日郡長鬐面職員一同

迎日郡峰山面 面長 嚴柱英 書記 鄭圭鎔 書記 金炳垓 書記 吳貞錫 書記 吳佾象 書記 李鍾國

迎日郡峰山面牟浦 漁業 崔星鎭

慶北迎日郡滄洲面邱坪 有志 崔柄俊

慶北迎日郡滄洲面邱坪 區長 朴在文

朝鮮慶北浦項仲町 時計眼鏡指輪貴金屬蓄音機レコード樂器式手提(金)鞄 島田時計店 電話二二三番 振替一〇二五六番

浦項旭町 金細工編 萬成商店 主 郭守萬

慶北浦項本町 商洋襪類メリヤス帽子タオル品種石油都賣新化粧品其他雜貨商 三共商店 主 金昌潤

慶北浦項港 鄭松子(一笑)

浦項仲町 大邱館 主 李興德

慶北浦項 朝鮮料理 雲亭 主 金奎東 電話二二番

慶北浦項仲町 帽子メリヤス運動具旅具商店 關屋商店 主 松原茂一

慶北浦項大正町 司法代書人 朴庚出

浦項本町 總고무靴鮮散賣 主 金甲伊

浦項仲町 朝鮮料理 太平館 主 全相天

慶北浦項本町 綢緞木綿及土產物雜貨 尹應三商店 電話三〇二番

慶北浦項榮町 醫師 海吳醫院 吳鉢洙 電話一六二番

浦項本町 綢緞布木 金山商會 店員 韓相國

浦項仲町 迎日理髮館主 申萬方

慶北浦項本町 有賀學生帽子洋襪雜貨學生用品 商 崔景成

慶北浦項榮町 海陸物產委託販賣運送店 姜雲瑞 金億卿

浦項警察署職員一同

浦項公立尋常小學校 校長 江木喜一 外職員一同

浦項旭町二三一 司法代書人 崔漢樹

慶北迎日郡浦項榮町 米穀物產貿易商委託販賣承認取扱店 金斗河 電話二七九番 電略(キ)又ハ(トカ)

慶北浦項仲町 各種印材 啓文社印刷所

慶北浦項港大正町 相願醫院 院長 鄭相願

迎日郡浦項本町 海陸產貿易商 崔柄基商店 電話一四〇番 電略(キ)又ハ(기)

慶北迎日郡 浦項面職員一同 電話二〇八(一般用) 四九(面長及會計用)

浦項本町 韓永守商店

浦項榮町 司法代書人 鄭成鎔

慶北浦項迎日郡廳前 盈德旅館 主 崔一注

朝鮮慶北浦項本町 ナイト號 ノーリツ號 ラツヂ號 特約 中村自轉車店 電話三〇番

慶北浦項本町 海東洋服店 主 崔福植

慶北浦項港 料理屋組合

慶北浦項 承認取扱 (東)東亞運送店 電話二六三番

慶北浦項川口 海陸物產委託販賣並貨物運送 金桂順 電略(マルキン) 電話二三一

慶北迎日郡浦項面斗湖洞 普明學校職員一同

慶北浦項港大正町 文化堂印刷所 主任 李起烈 黃潤奎

慶北浦項港仲町 支那料理 震慶居 主任 陶翰章 電話二七六番

迎日郡廳職 畜產同業組合員 迎日郡農會一 迎日郡森林組合同

慶北迎日郡浦項港 漁業並海產業 金鍾樹

慶北浦項港上里 議員 朱繡玉

慶北浦項港 議員 鄭蘭玉

慶北浦項港 浦項繁榮會 會長 朴允余 副會長 金斗河 [illegible]

慶北浦項港 觀水會

迎日郡興海面南城洞 李黃旭

迎日郡興海面望泉洞 李亨大

迎日郡興海邑 朴柄崙

迎日郡興海邑 李相鉉

迎日郡興海面協議員 村上那太郎

迎日郡興海面協議員 中村鶴吉

興海邑兄弟理髮舘 鄭方于

迎日郡興海面城內洞三五番地 司法代書人 李鐘律 崔鳳鎬

迎日郡興海面長 鄭基煥

興海面學城洞有志 盧方佑

慶北迎日郡興海面竹川 東明學校校長 崔錫九

慶北迎日郡神光面上邑 有志 金龍洙

慶北迎日郡神光面上邑 青年有志 金學魯

迎日郡神光面 面長 李源機

慶北迎日郡神光面牛角 有志 李種久

迎日郡神光面土城神光面職員一同

神光面土亭洞 區長 金洪述

迎日郡神光面盤谷洞 區長 片成道

神光面盤谷洞 有志 片基鉉

神光面盤谷洞 有志 吳圭成

神光面盤谷洞 有志 金燦默

神光面盤谷洞 有志 吳宰興

神光面盤谷洞 有志 吳世興

神光面萬石洞 有志 孫永壽

神光面土城洞 區長 金慶久

神光面萬石洞 永生堂大藥局 主任 金字植

神光面牛角洞 有志 李錫梅

神光面駐在所巡査 金鎔國

慶北迎日郡興海面竹川 崔萬浩

慶北迎日郡滄州面長吉里 面協議員 鄭漢溶

慶北迎日郡烏川面 進明學院職員一同

慶北迎日郡烏川面 面協議員 林炳直

慶北迎日郡兄山面環湖洞 青年有志 李相鎬

曲江面七浦洞 (朴)漁業部 主任 朴實根

興海邑 李成雨

慶北迎日郡東海面林谷 漁業 鄭小鳳

慶北浦項本町 各種洋襪メリヤス內衣運動鞋便利靴化粧品有字貿藥其他諸雜貨商 永信商店 主 崔孝鎭

朝鮮慶北浦項仲町 運動具帽子履物메리야수類文具雜貨 우리商店 主 李尙甲 電話( )番 電略(리)又(우)

慶北浦項本町 總고무靴及各種履物都散賣 李鳳鶴商店

浦項金曜會

慶北浦項面斗湖洞 面協議員 張萬俊 電話二四六番

迎日郡浦項面浦項洞 面協議員 李一雨

朝鮮慶北浦項本町 港務議員 中谷升三郎

慶北迎日郡浦項面 面協議員 朴允余

興村公立普通學校 校長 福島秀朝

慶北迎日郡浦項面斗湖洞 海產業名望家 佐佐木悅藏

慶州郡陽北面甘浦港 勞働共濟會長 趙榮昊

慶州郡陽北面甘港浦 大東旅館 姜順玉

慶州郡陽北面魚日市 綢緞布木雜貨自動車停留所取扱 金永執

朝鮮日報浦項支局 顧問 朴允余 顧問 金顯台 支局長 李載雨 記者 金□波 記者 李鍾哲 會計 崔甲成